朝鮮日報 夕刊 九日(土)

英國側의支持어더 歐米派猛然擡頭
五全大會압두고親日派威脅
宛然히排日時代再現

【南京八日發電通】五全大會를압두고 政權爭取를 目的으로한 各派의 暗鬪는 猛烈히 開始되어 歐米派와 黨部中心派는 對日强硬論으로써 汪精衛派의 排斥을 企圖하고 最近各方面에 對하야 血魂除奸團의 名義로써『對日出賣國奴를 埋葬하라』는 脅迫狀을 送附하야 在京各中央委員及 五全大會代表를 威脅하고 他方 宋子文、孔祥熙一派는 어데까지 對英借款의 希望을 버리지안코 機會가잇스면 露骨的反日態度로써 汪派에 內迫하고 잇다 이에對하야 蔣介石氏는只今 汪精衛氏의 意思에 反하야 그를 辭職케하는것은 對日關係를 惡化케할憂慮가잇슴으로自重的態度를 取하야 적드라도 五全大會終了까지는 現狀維持로進行할方針인데 此等反日分子의勢力은 幣制改革에對한 日本의反對가잇슴에도 不拘하고 英國의支持를 어든事實로 俄然擡頭할수잇는形勢를 誘致하야 蔣介石氏가 果然어느程度까지 此를制裁할는지 疑問인바 日本官憲은推移를지못 重大視하고잇다

蔣介石氏中心으로 對日方針協議

【南京八日發聯合】蔣介石氏는駐日大使蔣作賓氏의 重要報告를 聽取하는同時에 軍政部長何應欽氏 內政部長黃郛氏湖北省政府主席張群氏西北剿共副司令張學良氏等巨頭를 招致하고 日本政府의 要求와 및北中懸案의 根本的解決案을 中心으로 거이連日鳩首協議를 進行하고잇다

蔣氏特使熊斌氏 宋氏에訓令傳達
商氏와妥協코北中政局維持

【北平八日發聯合】蔣介石特使熊斌氏는 正午・飛行機로 南京으로부터 北平에 到着하는 即時 宋哲元氏와 會見하고 蔣介石氏에게 親書를 手交하고 도 「商震氏와 妥協하야 北中政局維持에 萬全을 期하라」는蔣介石氏의 重要訓令을 傳達하엿는데 北中獨立政權實現에 向하야 邁進하고잇다고 認定되는 宋哲元氏가 果然 如何한 態度로서 이에 應諾할는지 北中政局은 極히 緊張되어잇다

宋氏態度如何極注目
宋、商兩巨頭握手는 新政權樹立前提

【北平八日發電通】宋哲元、商震의 二大勢力을 相侵케하지안코 共存的으로 調和케하는것이 北中大局上 絶對必要하다는 北中見地에서 最近 日本側의 斡旋下에 兩巨頭의 握手가 實現되여 從來의 對立的感情을 一掃하고 北中의 大局維持에 相互協力할 盟約을 締結하게되것은 各方面으로부터 非常한 期待와 歡迎을 밧고잇다 그리고 北方民衆의 生活基礎를 根本부터 顚覆하게되는 南京政府의 現銀流通禁止令에 對한 呪咀的反對로 醞釀되고잇는 北方自治委員會問題는 當然 北方自治政權의 第一段階가되여 宋哲元政權樹立의 前提的役割을 ...

外陸省協力하야 中國의猛省促進
背信行爲에極度憤慨

【東京電話聯合】突然斷行한國民政府의 幣制改革은 國內에異常한 衝動을 與하엿는데 一方그背信行爲는 痛烈히 日本의當局을 刺戟하야 中央部에서도 그 影響이 重大한데鑑하야 其裏面에서 活動하는 英國의暗躍과 이에 對한國民政府의 態度에 甚히不滿을懷하고 愼重對策을 考究하고잇는데 右에關連하야 去六日 크라이브 英國大使는 外務省을 訪問하고 重光次官에對하야 英中間一千萬磅借款說을否定하고 聲明에 努力하엿고 또八日에는 駐日中國代理大使丁紹仍氏도 同樣으로 重光次官을 訪問하고 今回의改革은 自力更生의意旨에依하는것으로 何等事前에 外國과 借款 其他의協議로 決定한것은아니다 라고 極力辨明說明을 求하엿스나 이에對하야 重光次官은 中國側의態度를 遺憾으로녀이고 嚴重警告한바잇섯다 他方 現地에서는 中國側의 背信에 對하야 駐中軍部는 憤慨하야 監督을 保持하는 目的으로 協議를進行하는一方 大使館當局도 有吉大使를 中心으로 駐中軍部와協力하야 最後의 對策을 考究하고잇다 中央部에서도 駐外當局의報告에 依하야 重要協議를거듭하고잇는데 外務、陸軍이 協力하야 近近 正式으로 猛省을促하리라고觀測된다

日本과提携안하면 北中은存立不可能
宋哲元氏極力主張!
蔣介石氏特派懷柔使熊斌氏에對하야

【北平九日發電通】南京參謀本部次長熊斌氏는 五日來 宋哲元、商震、秦德純等諸氏와 長時間會談하고 蔣介石氏의意를 體하야 北中安定에 關한 北中首腦者의意見을 徵하엿다 特히 宋哲元氏와의 會見에는 秦德純氏도同席하야 前後四時間에 亘하엿는데 熊斌氏는 五全大會를 契機로 中央政治機構에도 重大變化가 잇슬것이다 北中의 特殊狀態에對하여는 蔣介石氏도 充分諒解하고 잇는바임으로 今後 中央의 意思에 背馳되는 民衆運動을 極力阻止하야 外患을 招來치안토록 中央統制力의 徹底를 期하기바란다 고하야 極力懷柔에 努力하엿다 이에對하야 宋哲元氏는 一、北中刻下의急務는 日本과의 外交關係를 圓滑히할것과 共産軍을 防衛하는 二大問題이다 北中現狀의 認識에對하야 中央은 큰 錯誤를 招來한모양이나 今日의事態에잇서 北中 特히 河北 察哈爾兩省에 잇서서는 日本과 全面的强調를 保持하지안흐면 絶對로存立할 餘地가업는것은 勿論 共産軍防衛問題에 對하여도 日本의 意向을 尊重하지 안흐면 안될 關係가 잇다 고 詳細히陳述한後 宋氏는다시 北中實情에 即하지아니한 銀國有令을 突然公布하야 北中人民에게 多大한 生活不安을 招來케한것은 遺憾이다 라고 中央政府의 그릇된 政策을 指摘하엿슴으로 이點에對하여는 熊斌氏도 深히同意를 表하엿다고傳한다

廣西도現銀解送保留

【廣東九日發聯合】中央의 銀國有令에對하야 廣西省政府當局은 中央으로現銀을 解送하기를 一旦保留하기로 決定하엿다 但省內에는 일즉부터 現銀을 流通하지안코紙幣에依하야 去來하고잇다

天津銀行當業者
現銀中央解送絶對反對

【天津九日發聯合】天津市長 程克氏는 八日 中央、中國、交通等 天津銀行界 代表者를 招致하고 銀國有令에 關한 對策을 協議하엿다 席上에서 當業者는 準備銀保管委員會 分會를 設立하고 現銀을 天津에 保留할 必要를 指摘하고 現銀의 中央解送에 絶對反對를 表明하엿다

銀輸送實力阻止 北中에서手配完了

【天津八日發電通】南京政府는銀國有政策에 依하야 全國各地在銀을 中央으로 集中하게하는데 對하야 天津財界에는 아직正式으로 中央으로부터 輸送命令을 接하지못하엿스나 萬若命令이 到着하야 中國銀行이輸送하는일이잇스면 北中實力은 斷乎 此를 阻止하기爲하야 諸般準備가 完了되어잇다

大元帥陛下
大演習御統裁

【鹿兒島電話聯合】御駐蹕第一夜는 고요히 새여九日은秋空一碧、陽光 燦爛한 絶好의天氣이다 이날아침 大元帥陛下께압서는 御氣先도 御良好하시와 御機嫌의 御快適을 奉祈한 側近供奉人을 비롯하야 十八萬鹿兒島市民은 誠心으로 御歡喜하여잇는데 陛下께압서는 御機嫌하사 御靜養하압시엿다 菊池侍從武官은 九日 午前七時十分 鹿兒島着 急遽 大本營에 參進拜謁하엿다 陛下께압서는 御氣先이 御良好하시와 今日도 終日 大本營에서 同日夕刻演習을開始한兩軍의配備와 및 一般方略에對한 兩軍司令官의處置決心에對하야 御熱心으로 御統裁하시며 本庄侍從武官長等에게 種種御下問이게시압섯는데 御精勵에側近奉仕者는恐懼하고잇다

國際全貌

伊太利轉落危機
—"케사"를부린秦始皇帝—
(六) 安在鴻

×

주네브 六日發電은 나에게 쓰獨逸도 이내 間接的인 對伊經濟制裁에 協力 하게되어 伊太利의 孤立은 갈스록 高하게되것을 報한다 이로인하야 로마의 人心에는 一大暗影을 이르키엇고 伊太利는 인저저절로 極度의 物資統制를 要하게되것스매 獨裁主義의 强烈도度化한 適用이 實現되리라고 觀測되는 터이나와 따스시슴은 제손으로擴張한 重大한 禍因에 依하야 지금과 伊太利의 運命은 千丈에서 指摘하엿지만 마엽되잇하면「뭇소리니」는 나폴레옹三世나 윌헤름二世의、覆轍을蹈할것이오 伊太利는 羈業을다되데에 엇질르고 第二流以下의 衰頹國家에 一時에 轉落할것이다 目下(七日夕)에「마칼레」의 勝敗가 伊에兩軍사이에 血爭되는 中이라고하나 戰地에 잇는 伊太利軍이 그天險과 惡天候와 및軍需材料等의 不備에因하야 자못 士氣 沮喪한 狀態下에 잇는것은 가릴수업는 事實인것이니 그 孤立無援한 國家的危機가 매우 深刻한것이아니할수 없이게한다 그러나 英伊의사이에 和協의條目이 한편에서 詮議될과함께 一個의 救星이 太平洋의 西人녁하늘에 나타날을보는것은 奇한일이다

×

往年 滿洲事變이 잇고 上海事變이 러지고할때「스팀손」의 米合衆國은 자못 昂然한 氣勢이엇섯다 그들은 不戰條約을 들추어내고 國際聯盟에協力을주고 몃차레의 同文通牒이 關係兩國間에 交付되고「스팀손原則」 이란것가 公表되엇섯다「푸라트」軍令部長의 斷言이 아니어드든지 후버」와「스팀손」等 米國의 政治家들은 흑은 一戰의 覺悟를 實踐으로응할것스리라고 外交通의 論客들이 豫言하는바이다 그러나 目下「루즈벨트」의 米合衆國은 에디오피아에 向하야 너무無關心에 갓가운듯이 冷淡을表하고잇다 합國務卿에依한 不戰條約 遵守要請의 聲明(九月十二日)이 一片儀式化 한者이엇섯고 그와 前後하야「리케트」氏에依한 에디오피아에서의 尨大한 利權의 獲得에도 全然退讓의 態度에 잇스니米合衆國은 國內二千餘萬의 黑人을 包擁한者이라 同一基督敎國인 唯一한 阿洲의 獨立國家에對한 同情도 이래서는 매우 消極的인 者이다 그러나米國의 巨大한 艦隊가區區東阿洲의 一暴色帝國에잇지안허 스완손等의 關心하는 太平洋優位權保障政策과 그의渡洋攻勢作戰의 全力量이 東을견옹이오 西에汪洋할바 아니니 方今 天下의 擾亂에 地中海에만 集中되는바 아니어서 實은極東의 海濱에를 갑분하게 떠나려고 아니하는것이다 米의精力이 極東으로集中하려하니 英이또홀로 東方을 閑却하고 伊太利로 더부려「에디오피아」에만 熱中할수업는것이다 그런데佛蘭西는 로마協定以來의 伊太利의 友邦이라 그러나 英과 相互援助를協定하야 伊를制裁키로 하나 그는伊로하야금 진작그最少限에 斷念함이잇고 그대신에 라발首相의 和協斡旋에調化됨이 잇기를 待望 함으로써이라 그럼으로 歐洲에서는 佛共和國이 그風雲을 左右할열쇠를 잡은것이오 英帝國으로 伊와의和協을 內心에 冀願케하는것은 그原由가 또따로잇는것이다

×

昔者에 秦始皇이 三十萬의 雄兵으로 北方을 擁護하고蒙恬으로 長城을쌋혀다 遺業防胡萬里城의 詩가 焚書坑儒로서 그를 切憎하는 儒者들의 입에서나왓섯다 그러나 世界의剽悍果敢한 鑼族인 한쓰匈奴人으로서 天山南北의길을 횡쓸면서 볼가河의 流域에나타날때「케사」는 羅馬의 大英雄이라 傾國의 兵力으로써그들에게 뒤쳐나온 移動하는「까리아」의 大部隊를 防戰함으로써 그生平의 大業績을 잡엇섯고 그러허되 民族의 大移動은필경 全歐洲의歷史를 뒤집엇다 秦始皇과「케사」는 時代의相距가 一百五十餘年이오 長城의役과防戰의 亂은마치 一百五十七年 만의일이라 歷史的因果는 奇妙한것이매「케사」가오히려 秦始皇의 餘威에 辛酸을 맛보것이려니 現代에서「케사」를祖述하는「뭇솔리니」는 그흑始皇故國에서 이(異)는 風塵으로 말맴어 偶然히 그瀕危한몸을 擁護될수 잇슬가? 歷史의바귀는 물아단는다?

伊戰鬪艦建造를 英國側에서承認
英伊海軍豫備會商에서

【倫敦八日發電通】信用할만한側의 情報에依하면 七、八兩日의 英伊海軍의 豫備會商結果 英國은 伊太利가 三萬五千噸의 戰鬪艦二隻을 建造하는데 反對하기를 斷念하엿다한다 即 英國은 伊太利가今年中 完成한三萬五千噸의 戰鬪艦리트리오 비토리아베네트의 二隻을 建造할計劃을 發表한當時부터 뭇솔리니首相說服에 努力하여왓스나 兩日會談에 依하야 伊太利의專門委員 루이스피어提督과 말코치니中佐는 뭇솔리니首相의 兩戰鬪艦의 廢止에 反對한다는旨를 傳達하엿슴으로 英國側도 드듸여 此를承認하게되것이라한다 그러나 그때英國은 伊太利가 三萬五千噸을 增加하는 戰用艦의建造에는 贊成하여도 若干國은 伊太利新簉級艦에 對抗하기爲하야 同樣의建艦을 하는것이 必要하다고 認定할는지도모르나 此等國家도 伊太利를 따를터이니 三萬五千噸級을 建造하는것은 상갈것이다 라는 意見을表示한것이라고 解釋된다 英國海軍은 伊太利와의 諒解가成立되는 同時에 佛國에對하야 이미進水를 終了한 二萬六千噸의 단케크號와 豫算에 編入되여잇는 그 姉妹艦스트라스불號의 兩戰鬪艦은 承認하드라도 조타는 印象을주는意思를 通하는模樣이다 이리하야 英國의 態度는 戰鬪艦의 單艦噸數와 備砲 口徑의縮少를 目的한 多年의 努力을 抛棄하는것을 意味하는同時에 大艦巨砲主義를 新時代로導入하는것이라하야 海軍軍縮本會議의開催를 目前에 두고잇는此際 極히 重大視되여잇다 이英國의 態度豹變은 太平、大西兩洋에 充分한 前進根據地를 所有하지못하엿슴으로 艦隊航續力의 큰것을 求하야 戰鬪艦의 軍艦噸數의 增加力을 主張하여온 米國의가장 歡迎하는바로 單艦噸數縮少에關한限 日本과 步調를 가치하여온 英國이 米國과 合流하게되것은 質的制限의 前途에 一大暗影을 投한것이라할것으로 如斯한 時代逆行的情勢는 來軍縮會議를 一層 悲觀케하는것이라고 觀測된다

廣東市人心動搖
武裝巡警嚴戒
物價는二割暴騰

【廣東八日發聯合】省政府의 現銀收容令으로 廣東市의 物價는 二割이나 暴騰하게되엿다 市內는 人心이動搖되어 目下 省政府는 武裝巡警을 市內要所와 外國租界附近에 配置하고 警戒하고잇다

北平市長으로 秦氏就任
即時現銀移送禁止

【北平九日發電通】秦德純氏는九日朝九時市政府에서 市長就任式을 擧行하엿다 秦市長은 南京政府의 銀國有令對策의 暫定的으로 九日午後 北平銀行公會及 錢業公會代表를 市政府에 招致하고 現銀의 南方移送禁止를 命令할터이다 右는 宋哲元氏의意向에 基하는것으로 宋氏는 北平天津의 現銀은 一元이라도 南方으로 移送하지안토록 方針을 堅持하고잇다한다

平津에保管分行 設置要請決議
宋哲元氏도贊成

【北平八日發電通】平津衛戍司令宋哲元氏는 八日 銀行工會 商會 錢業工會聯合會議의 結果 北中의 現銀을 南方으로 輸送하면 北中에 即時 金融大恐慌을招來할것임으로 北平及天津에 保管分行設置를 財政部에 要請하기로決議한데 對하야 多大한 贊意를表하엿다 平津地方의 治安을 維持하는 見地에서 近近南京政府에對하야 北中의 現銀은 그대로平津兩地에 存置케하도록 決定할라는旨의 强硬한要求電報를發하기로되엿다

人事・集會

▲金翼諧氏(月刊雜誌新人文學記者)人事次來社
▲田中利昌氏(田中製●・뿌로카社長)開業人事次來社
▲宋田清志氏(同社員)同上

國際新機構組織에 獨逸側도參加意思
蘇聯의赤化工作에對한共同戰線編成
英佛에協力을要求乎

【巴里八日發聯合】히틀러總統의 外交使節 립펜드로프氏는 十一月末 巴里를訪問하고 다시 倫敦에 赴하야 英佛兩國政府當局과 重要協議를 遂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傳한다 이미 英佛兩國政府間에는 局地的相互援助案을 基調로하는 國際平和新機構에 對하야 非公式으로 協議가 進行되고잇다고 하는데 特使의 訪問을契機로 新機構確立의 工作은 마츰내 具體化하지안흘가 觀測된다 消息通의 觀測에 依하면 特使립펜드로프氏는 獨佛兩國和協의 前提로 左의 具體案을 示唆하지안흘가 觀測된다

一、蘇聯政府의 赤化工作에對하야 共同戰線을 베풀것 따라 佛蘇兩國間에成立한 相互援助條約을 批准하지안코 流産에 歸케할 用意가 잇는가

一、激烈한 軍備競爭을 阻止하기爲하야 何等의協定을 締結할것

一、로카르노條約案을 承認하야 라인란드地方의 武裝制限을 解除할것

一方英佛兩國政府는 新國際機構에 獨逸政府를 合流케할 方針下에 左의對策을 提示하리라고 觀測된다

一、獨逸이 國際聯盟에 復歸하야 東部로카르노協約案을 受諾하고 또倫敦宣言에 基하야 空軍로카르노協約案을 受諾하면 再軍備의 合法化에 同意함

一、但右提案에 應하지안흘境遇 英、佛兩國政府는 極力軍備充實을 圖할수밧게업다

重光次官警告
急激한幣制改革斷行은遺憾
中國側의反省을要望

【東京電話聯合】丁駐日中國代理大使는 本國政府의 訓令에 基하야 八日午後四時三十分 外務省에 重光次官을 訪問하고 今回國民政府가 實施한 幣制改革案의 內容에關하야 右는 國民政府獨自의 見解에 基하는것으로 事前에 英國과 協議한事實은업다 그리고 同案의 內容은 일즉 日本側이 提唱하든自力更生의 趣旨에則한것으로 全然 爲替安定을目的으로하는것임으로 日本側의 諒解를 어드리라고 信한다고 中國側의 態度를 說明하야 日本側의 諒解及 支援을 要望하엿다 이에對하야重光次官은 今回의 幣制改革案의 內容如何는 如何든 日本은 中國側의 이러한 急激한 改革으로 자못 困惑하고잇는바 中國側의 獨全的態度에 遺憾을 表하지안흘수업다 고하야 嚴重한 警告를 發하고 中國側의 反省을 要望하고 六時會見을 終了하엿다

八面鋒

第一次로 肉食을 制限하고 第二次로 石炭節約을 爲하야 鐵道運轉을 減하고。
◇
第三次로 一食一皿、冷飯主義를 實行하라하야 伊太利의 制裁對抗令 漸入困境。
◇
『에디오피아』보다는 强하면서도 英佛보다는 弱한것이 臥薪嘗膽의 素因
◇
實力으로는 中이면서도 希望으로는 上을 바라는데『뭇솔리니』의 苦悶은 釀成。
◇
北部戰線에서 第一着으로 投降한『그구사』將軍『마칼레』戰功으로 知事에被任。
◇
이만 程度의 功名이라면『에디오피아』에는 업섯든가『막걸리』가튼 人生의『지거미』가튼 功名이라하여들가。

大阪高津表門筋
昔も 今も
効能で賣れる 七ふく(시찌후꾸) ひゑぐすり
登錄商標
効能 上氣를引下하고通便을잘함 梅毒淋疾諸毒을除함
定價 半週分廿五錢 一週分五十錢 送料十錢 三週分一圓卅錢 五週分二圓 郵外四十二錢
本家 七ふくや伊藤長兵衛
振替大阪九七三・電南七二九

柳韓洋行
네오톤토닉

筆生 遠近男女의分別업시自宅에서쓰되는 ... 詳細通知함
大阪天王寺北河堀町 盛文社

京城 金 地金銀分析賣買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賣入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

濟州아가씨 (남국의 로만스 濟州道에서 落葉에 눈물지는 아씨마음!)
新民謠 高芭影 作詩 全壽麟 作曲 金福姬
레코드 四九三八〇 빅타―레코―드

◇總고무 (와싱톤) 운동화・다비 其他各種
◇高級고무 品質保證 都散賣
防寒靴는『지구표』가 第一이오
지구표고무신
登錄商標

自轉車一年一回 工場から直接 進呈
信用重視

Columbia
모―차르트作 提琴協奏曲 第四番D長調
요세프・시게티(提琴) 토―마스・비―참 卿 指揮 倫敦필하―모니크 管絃樂團
十一月二十日 特別發賣
總譜贈呈(十一月廿五日까지의申込에限함)

朝報案內
外交員採用

電氣醫療師
近日總督府令發布・今回特別貴任教授함
最新電醫 學理、實地全科責任養成
●短期卒業、僅小한資金으로 도꼭成功한다
●醫師同樣의尊敬과收入을엇고 一生安樂할高職
朝鮮에서本院以外에는資格잇는養成所는업다
認可 朝鮮高等電醫講習院

精神、神經科 腦、脊髓科 京城郊外淸凉里 原病院

거북선 고무신
京城東大門外

純佛蘭西料理
高級食堂 永保グリル
近代的建築의豪華를자랑하는永保빌딩에서優雅한設備와特別히調理된料理!
團樂하신家族의散策하시난途次와貴賓紳士의社交、商談、會合、結婚、送迎大小宴會에만히利用하여주시옵소서
一階=酒場 二階=食堂 三階=宴會場・家族席
京城府 黃金町二丁目 永保ビル

東海岸暴風으로 漁夫二十三名失踪

漁船破壞建物等流失도多數

江陵郡沿岸의被害

【江陵】 이달상순경부터 동해안일대에는 비가나리기시작 하더니 오일새벽부터 갑작스러히폭풍우로 화하야 때마츰 어스름달밤을리용하야 고등어잡이를나아가는 어선등이 조난 되엇고 일방 이풍랑으로 인하야 연안일대 건물등의 피해도 상당한데 칠일까지 발견된 피해중행방불명 되자 이십삼명, 파괴된 어선사척, 강릉항내 수산조합창고의 류실, 동항내에 적치하엿든 게림회사 수재목등이 가장 중요한 피해이나 아즉도 판명안된 인명의 피해는 상당할것으로 추측 되어 군내 각관리관은 일치하야 발견과 구조에만 맘의 노력을 다하고잇다 그리고 금번의 피해를 금전으로환산하야보면 실로 일만오천여원을 내리지 안흐리라고하며 인명피해의 상세는 다음과갓다

◇行方不明者

墨湖面於津里 崔大元(四○) 劉九(三七) 文萬龍(三八) 徐士吉(四○) 劉永淑(二九)

沙川面沙川津里 金興津外五名 劉大龍外五名 許京集外五名

船橋里老富豪 殺害犯判明

【平壤】 평양부내선교리(船橋里)에서 연초소매업부호로인 경상철(慶尙哲)(六七)의 괴사건은 평양서에서 전과륙범 오신엿(吳信沐)(三七)을 유력한 혐의로자 체포하고 엄중취조하여엇스나 룰적증거도업고 자백도하지안어 수사에 난색을보히더니 오일에일으려 오산영은 범행을 전부토해버려 암성(岩城)검사는 범인을 대동하고 실지검증까지 맛치어 완전한 진범인으로 판명되엿다

世界올림픽派遣 朝鮮拳鬪豫選大會

十二月七日本社講堂서

全朝鮮아마추어 拳鬪聯盟主催와 本社後援의 第十一回 世界올림픽 大會에 朝鮮代表를 派遣選手의 朝鮮拳鬪豫選大會는 豫選競技과 決勝戰 二回에分하야 行키로決定하얏는데 豫選大會는 來十二月七日에 本社大講堂에서 열기로되바 大會規定은 다음과갓다

◇豫選大會=朝鮮豫選大會決勝戰에 出場할 資格選手를 査決定함(但豫選戰에勝者라도 大會審査部의 審査決定이 無하면 決勝戰에 出場資格不得함)

◇決勝大會=全日本決勝大會에派遣할朝鮮代表選手를査定할 本大會는 昭和十一年一月上旬에 擧行함(其他詳細는追後發表)

運動競技

東京서優勝한 京城軍凱旋

東京에 遠征하야 全日本地方對抗戰에서 優勝한 京城軍蹴球團一行十一名은 豫定과가티 九日午前七時四十五分에 京城驛着列車로 元氣旺盛한가운데 凱旋하엿는데 一行은 同日午後六時에 食道園에서 開催된歡迎會에 參席하아 東京서 優勝한 苦戰談과 各個人의 體驗談을 報告하리라이다

崇實蹴球團 十二日에凱旋

【平壤】 東京明治神宮競技에 出戰하여 敗北의 動으로 全日本中學校蹴球界를 無難히 壓倒한 崇實學校蹴球團은 十一日午後七時五十二分에 平壤驛에 到着하리라는데 이날에는 崇實關係 學校職員과 生徒는 勿論 各方面代表의 出迎이 있을 豫定이다 崇實當局과 母校關係者들은 盛大한 歡迎會를 開催키로 하엿다

全米軍對法政野球 實況을海外放送

【東京電話】 米(十二)日神宮球場에서 全米아마츄어軍對 法政大學軍의 野球試合이 擧行될터인데 放送協會에서는 이 實況을 海外에 잇는 日本人及米國人에게 傳達키爲하야 特히 新鑑局長하버드한 氏로하야금 英語아나운서를 依嘱하야 同日午後二時부터 三時까지의 海外放送時間을 四十分延長해서 球場內의 試合의實況을 放送한다

立敎7A 米軍1

【東京電話】 全米아마추어野球團의 對立敎戰은 九日午後二時三十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擧行하엿는데 結果 立敎七A對一로 立敎가 勝利 戰時三十分

立敎	3	0	0	1	2	0	0	1	A	7A
米軍	0	0	0	0	0	0	0	0	1	1

中等校英語演說會

연희전문학교(延禧專門學校)주최 전조선중등학교 영어웅변대회(全朝鮮中等學校英語雄辯大會)는 금구일 오후일시반부터 부내정동(貞洞)배재고등보통학교(培材高普)대강당에서 윤치호(尹致昊)씨외 사씨의 심판아래열릴터인데 이번에 참가한학교는 전조선남녀중등학교 여덟곳이라 한다

安全地帶事故 二名을殺傷

鄭林탁씨自動車가달리다 今朝鍾路五丁目慘變

구일오전 여덟시동대문 으로향하야 달아나든 자동차가 종로오정목 전차정류장 남쪽안전지대(安全地帶)에 뛰여올려와 때마침전차를 기다리든 승객옥치여두사람이부상하엿는데 한녕은 중상을바뎌 류혈이 랑자하야원 길가에 불은피로 물드리고 그만 기절하고 마렷슴으로 즉시 데려다 대학병원 송정내과(松井內科)에 열시사십오분에 절명하고 말앗다 한나 그는종로 오정목 삼백이번지의이호강씨(李氏)의 장남 류원근(柳源根)(?)으로 시내효창보통학교(孝昌公普校)의학생으로 학교를 가든길이라한다 또한사람의 피해자는 시외 동암리(敦岩里) 권한태(權漢泰)의처 김아지(金阿只)(?)로 다리에치료오일간의 경상을 입엇다한다 동대문서에서는 가해자인 영락정(永樂町)이정목 계림(鷄林)택시의 운전수안재달(安載達)(二?)을 검거하야 엄중히 취조하는 중이라한다 (사진은 사고내인 현장)

孤兒院차저流離하는 七歲의天涯孤兒

파주서 서울로 혼자오긴햇스나 갈곳이업서西大門署에서保護中

나무에도 돌에도 의지할곳이업는 천애의고아ㅡ겨우 일곱살난 소년이 행복의 나라로 꿈꾸는 고아원을차저 단신 경성으로 올라는 왓스나 어찌할바를 몰라 가두로 방황하는 당세 동화(童話)의 한토막이 밤거리에 흘러저잇섯다 구일찬기운이심한 오전한시 길에 나선사람들이 제각금 집을차저 따뜻한 보금자리로 도라가고잇되 오히려 어머니의 젓꼭지를 그리워할 륙칠세의 소년하나가 시내 교남동(橋南洞)파출소부근에서 울며 방황하는것을 동소원이 무심코 김일본 아이거니해서 서대문본서로 보내어 보호를하엿다 동서에서 다시조사를한결과 개성방면으로부터 온 고아로 시내에 시굴버굴러드러온 소년룡팔의 신출내기 라는 한 정도에 끈지 그처치에 두통을 알코잇섯는데 그실 그소년의입으로 부터는 눈물과 미소를가

아비를찍엇든 반편子息有罪로결정

학대하는 아비를 독기로찍어 죽이려든 자식=강원도 회천군 간동면 동촌리(華川郡看東面東村里) 길동식(吉東植)(二?)은 본시 반편으로 어려서부터 그 랑친에게 몹시 학대를받고자라든데 금년륙월칠일 동군하남면용암리(下南面龍岩里)그 처긔홍영(吉洪榮)의집에가서 대청에두어둔 회중전등한개를 훔처가지고왓다가 그부친 길홍삼(吉洪三)(?)에게 몹시 매를 마즌 일이잇서 그때에 그 부친되는 길홍삼을 죽일생각을 가지고 기회를 엿보다가 동십일밤 열시반을해서 헌간에두어둔 독기를 가지고 드러가끈 히자는 그아버지의 얼골을내려찍엇다 그러나 눈알이비어지고 일곱이 빼개젓슬뿐 죽지는 아니하엿는데 그는 즉시 경찰에 체포되어 예심에까지 부첫다가 구일에 경성지방법원에서 비로소 공판에 회부되엇다

하여다 이아이는 얼골모습도매우 또렷하고 행동도 영리한터이니까 누구든지 거두어 기르겟스면 소개하겟다고 동서에서는말한다 (사진은 고아)

...머니』 어머니도 주것서요 아버지가 주그니까 어머니가 서요 고향은 김해(金海)여요 고아원에 가면 조타 하기에 왓서요 ... 『패주농인들』(坡州農人)서 왓어요 이가 고향이고 ... 선은 이(李)가고 일흠은 영순(英順)이고 ... 다리가 아퍼서 우니까 강동차 지 ... 하나! 오는데 다리가 아퍼서 오니 ... 다 주어서요』 하고 누가 주엇든지 헤여진 버되고서서 또똑하게 말대답을 하엿다

◇김장배 드러다은 작금의포구……마포에서

車京錫을爲始 普天敎幹部取調

최근포교방침이박구이면서 某種의嫌疑를바더

【井邑支局電話】 정읍경찰서에서는 지난팔일 오전아홉시경부터 보천교주차경석(普天敎主車京錫)씨를 위시하야 동교중요간부들을 모다호출하여다가 오후네시까지 엄중취조하얏는데 사건의 내용은 비밀에부치나 탐문한바에 의하면 최근에 이르러 보천교의 포교방침에 변화가생기여 어떤중요한 협의를 밧게된점이 잇다하야 그와가티 되것이라한다

滿浦線最大難關 狗峴嶺「턴넬」開通

總延長二千三百餘米

【北鎭】 만포선(滿浦線)이 다시 지난 십일월일일 개고개역(价古介驛)까지 개통되엿다한은 긔보한바어니와 동선의 부설시초부터 세인의 화제에 오르고잇든 개고개역이북련접의 구현령(狗峴嶺)턴넬공사는 동선의 최난공사가 될뿐아니라 조선철도사상에 초유의 대난공사로 작년칠월이래 연인수(延人數)이십사만의 인부가 턴넬의량구(兩口)로부터 공사를 진행하든중사백륙십오일만인 지난달구일드디어 혈통(穴通)하기까지에 이르럿는데 그연장이 이천삼백칠십일미돌이라는 조선서첫재가는 턴넬로써 압흐로 강계전천(江界前川)까지의 개통을 명소회십일면신이춘일일에 불수잇고종점인 만포진까지의 개통은 소화십이년십월일일에 넉넉히 불수잇스리라한다

私立維新學校 學父兄會開催

【安州】 침체상태에 잇던 안주사립유신학교(安州私立維新學校)는 지난 일학긔부터 신임교장 김정선(金鼎善)씨를 마지한이래 신흥긔분이 날로 농후함을 따라 지난 삼십일일 하오칠시반에 학부형회를 개최하고 동교에 대한 교육문제와 재정문제등을 원만히 상의하고 동십시 폐회하얏다는데 모이엿던 학부형은 백여명에 달하야 대성황을 일우엇다고한다

列車內의放送 試驗成績良好

明春부터實施할터

철도국에서는 요전 부터 려객 「써ㅡ비스」의일단으로 계획하든 차내방송장치는 요즈음에완성되야 지난팔일에경성, 대전간(京城、大田間)에서 재십렬차와 제오렬차에련결하고공무과 사사실과화성장치의『쎗트』를 수시로 렬차내의 일부에 장치한다음객차에『스피카ㅡ』를 부치여방송하는것으로 전렴은재차의 축전지(蓄電池)를 사용하는정교한계이다이장치는당분간렬차의 차등에 비치하고 처음으는손님에게 조선사정소개와 연선안내와려행상의 주의와『뉴ㅡ스』의방송을 할것으로 래년봄려행『씨ㅡ슨』부터 리용하리라한다

海難標語懸賞募集

체신국(遞信局)에서는 이번에 해난(海難)발생을 미리방지할수잇도록 당해자(當該者)의 주의를 일으킬 해난방지표어(海難防止標語)를 현상모집키로 되엿는데 응모자는 래년일월 십오일까지관제엽서에 한장에 한구식적어경성부 광화문통(光化門通)체(신국해사과로보내라는데 상)금은 다음과가다한다

一等	五十圓	一人
二等	三十圓	一人
三等	十圓	二人

亂賣戰헛景氣에 釀造業者大困境

代金回收안되여納稅成績不良

當局은小賣商을警戒

【平壤】 십칠년전 살인범으로 지금부터 십칠년전에 평양형무소 철창에 매워잇섯든 무기수(無期囚)요 그아들은 김귀춘(金貴春)(二?)이란씨씨 ...

료리집 경긔가조흐니 화류계시세가 조흐니하야 일부세상에서는 다시금조흔 경긔나만난듯이 억개스짓을하자 거긔따라 팔리느니 술(酒)이라양조고(釀造高)가늘고 주세(酒稅)가 올라가는 이때 그 리면에는 양조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잇는 안타까운 다른현상이 잇다 경성세무서관내에는 근자에이르러 각양조업자들의 양조고가 벗적늘어서세금의 과세액도 늘엇는데 과세액만이 늘엇지 도모지 징수성적이 조치아니하야 그리유를조사해본즉 각양조업자들이 넘어경쟁에 흘려소매업자를서로 엇고저하는까닭에 이야점을 아는각소매업자들은 술갑을 성실히내지아니하고 이달에는갑(甲)의양조장 제품을팔다가 빗을지면 내월에는을(乙)의양조장제품을팔어서각양조장에 부채만늘어서 이외가티 소매상이양조업자에게 질머진부채만이 경성세무서 관하에만 년래로누적된것이 사백만원의 거액에달한다고한다 이에각양조업자들은 세무서에 진정하야 경긔도경찰부와 련락하야압호로는 물론양조업자 자체의자각을 강화식이려니와 경찰이주류소매업자 즉 음식점영업을허가할때에 그사람의자산과신용을참작하야 허가하야주도록 하여달라고 즉경찰의힘을 빌어주류소매업자를 통제식혀달라고 하얏는데 경찰부에서도 일이세무상에 영향됨을보아 그요청을 듯기로하고 관하각경찰서에통첩중이라고한다

不意의殺人犯"어머니" 十七年後母子相逢劇

아들먹이려고 절도하다가 살인하고 무긔수로징역하다유긔로가출옥되여

運命에咀呪된이哀話

【平壤】 십칠년동안이나 행방을 알지못하고 떠러저잇든 모자가 감옥안 전옥실에서 희비가 교차되는 가운대서 포옹하는 동시에 다시금 새생활을 힘잇게 약속하면서 모자가독옥잡고 십칠년동안을 시달리든 감옥을 뒤로두고 나아왓다는 이야기가 평양형무소에잇섯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성녀(徐姓女)(?)라고하는 무서운 강도살인범으로 지금부터 십칠년전에 평양형무소 철창에 매워잇섯든 무기수(無期囚)요 그아들은 김귀춘(金貴春)(二?)이란씨씨 섯든 무기수(無期囚)요 그아들은 김귀춘이란 씨 은 김귀춘(金貴春)(二一)이란씨 한 농촌청년이엇스니 엇지하여 가장사랑스러운어머니와 가장귀여운아들이 십칠년동안이나 행방도 알지못하고 떠러저잇섯슬가?

◇

녀자로서 더욱이도연약한조선농촌의녀자로서 무엇때문에 강도살인죄를짓고 무긔수로 십칠년동안 감옥사리를하게되엿나?

대정칠년 양덕군양덕면(陽德郡陽德面)엇던 산간벽지 초가의 집에 비극의 각본(脚本)은 만드러젓스니 서성녀는 하늘가티 밋고 의지하든 남편이 저승의길을 향하여가자 오직한아인귀동이 귀춘을 가슴에 안은채로 그러나 씩씩스럽게 농사를 지으면서 울면서 단란한살림을 해왓든것이다 그러나 악착한 저주의신은 이평화 해야될 고독에우는 청춘과수서성녀의 집에몰진광풍을 집어던젓스니 갓득이나 생활의로대가업든 서성녀는 농작물의 수확이 전무하게되매따라 정처업는 류랑의 나그네를 만드러버리고야 말엇다

그러나 서성녀는 자긔의생명보다도 사랑스러운아들 긔춘을 굴머죽게할수는업섯다 이때문에 업는자의 최후용기라고 할수잇는「절도」질을 부지불식간에 행하게되엿스니 엇던농촌「방에간」에자다가 넘어도 자신이시장할뿐만아니라 젓꼭지먹고 배곱하우는 아들을나려다볼때에 엇던 농가에 침입하여 자루속에 드러잇든 좁쌀(粟)한닐을 주인의 승락이업시 가저오려햇다

그러나 귀가밝고 눈이 총명햇든 이집의 주부는 그가 가저가는 좁쌀을 그대로 주려고하지안엇슬뿐아니라 피가 나도록 못견딜 행동을하자 일생에 이런 장면을 당해보지못햇든 서성녀는 극도의 봇그러움과 무서움이 발작적으로 일시에 폭발하는순간 부근에잇든 식도(食刀)를 드러 주부를 찔러 넘어트리여서 입을 봉해버리고말엇다

◇

지금까지 한개의 모성으로 또는 한집의 주부로서 양전하얏든것을 자랑튼 서성녀는이시간부터는 강도살인범인이되고할 엇다 무정할손 법망의 손길은 그때 네살된 김귀춘을 아지도 못하는동리에 버려둔채로 헤여젓고 가련한 그녀자는 무긔징역선고아래에서 햇빗을 못보는 차디찬철창에 일생을 파무덧든 것이다

그리하야 초로조우 십칠개성상이란 다시말하면 전생애를옥중에서보내다하나 본시부터 마음이 악착하지안엇든서성녀는옥규를 잘준봉하고 자긔가마튼재봉을잘하여 형무소안에서는 모범수로서 칭찬과 상표를 바닷다 도기만해도 깃거운 가출옥의은전을밧게되엿다

◇

지난 삼일 서성녀는 련옥(鍊獄)소자업헤나아와 무슨소리를하는지는 몰라도 회색이만면하여 무엇을 읽어주엇다 조곰잇다가 너는 오늘부터 가출옥이 된다 틀때에 서성녀의 깃붐이야 무엇에 비기라만은 그보다도 뜻박게 십칠년동안 생사를 몰랏든 아들이 지금은 씩씩한 청년이 되여서 서성녀의 입에나타낫든 것이다 철창미테서 꿈가운데 속에 수업시 나타나든 사라젓다하든 내아들이 안이나 모자라는것이 인식되는순간 와락달겨들어 끄러안을때 네솟기 눈물흘린사람은 어찌이두모자뿐이엇스랴 그후련관의 사환으로 재목벌채부로 수금는인부로 힘잇게작업을한는중 형무소당국의 수배로 이날의 깃붐을 맛보게되엿다

◇

이래서 가출옥된 로모를 잇슬고 이날을 마음것 위로 하고 귀춘은 위선 양덕 으로 도라갓다 이 리유는 지금의 상태도서는 로모를 봉양할 향산(恒產)이 업기때문에 도시 기막히는 리별을 와도 또다시(又也)이 억기하기에일은것으로 서성녀는 유항회(有恒會)에 인도하여 방금 휴양을 식히는일방 형무소당국에서는 김귀춘을 평양에다려다가 새생활을 시작하도록 하고저 준비중이라하니 만천하동자는 그전도를 축복하라

◇

進行中에逃走

白晝뻐쓰內서窃盜

잡고보니부유한가정자식 墮落된남어지의犯行

구일 오전열시십분 종로부압헤서 동소문으로 가는『뻐스』속에서 승객인 부내 간동(諫洞)일백십륙번지 천진여(千鎭汝)(?)의 안해 리회숙(李會淑)(二?)의 머리에 꼬친 금귀개 한개를빼가지고 비호가티 뛰어내리어 재동쪽으로 다라나는 사나히를 종로경찰서 재동파출소원이 곳추저제포하야 본서에 데려다가 취조한결과 원동(苑洞)일백구십구번지 전황해도참여관으로 중추원(中樞院)참의까지 지낸 김(金)모의 둘재아들 각동(珏東)(二?)인것이 판명되엇는데 그는상당한가정에 태어나서 시내모고등보통학교 사학년까지 단엿스나 원체 소행이 조티못하야 학교도 중도에퇴학한후 그의집형편이 어려워짐을딸아 이곳저곳상밥집신세를지며 하는것업시 까지 마비되야 이와가튼 범행려다니든 나머지 드듸여 량심을 한것이라한다 전번에도 절도혐의로 인치되엿든일도잇서 이외에도 상당히 여죄가잇슬것이로 보고 취조를계속중인데 그는『뻐스』를 타고가든중 정신이별안간 이상해지며 무의식중이런범행을한것으로 다른죄는업다고말한다고한다

天氣豫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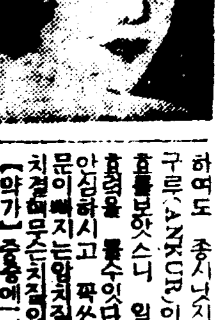
晴時時曇

昨日	最高	一五度
	最低	四度
今日	正午	一二度

치질엔 엉구루가제일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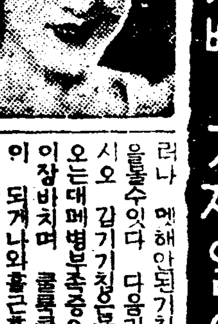
누구나물론하고 대개치질이잇는나하고 조약한당 상약이별치료를대여러해된 치질로 수술을해버리르기도하는약 (약은)경성신성당에로주문하시오

하여도 좀시낫지안튼 치질이엉구루(ANGUR)이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스니 일이변한것이아닙니다 효험을 볼수잇다 다음기른분은 안심하시고 꼭쓰시오피나는대흉 문이빠지는암치질 숫치질 치루 치질때문에는지긋지긋한치질 치료를덜습니다 【약가】 중증에 二원 경중엔 一원 송료선금이며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이오 공수료는 대금이요 뉘키도하고바로



기침·담·천식엔 엣치빼ㅡ가제일이오

남녀노소업시 대개 기침을하는것인데 여러해된천식 해소천식이 낫는다 해소가 신발명한엣치빼ㅡ이주일분으로 대효를보앗다 그러나 멘해안된기침이야 곳효력을볼수잇다 다음과가튼분은 꼭쓰시오 감기기침 불론부종으로오는 대폐병부종으로 기침과담이 장비치며 쿨룩쿨룩하는데기침이 되게나와 흘근흘근하며 질검이 하며 숨이 끄녀질것가튼데 되게안나와 도조금식 바튼기침하는대기침은안햇도장ㅡ담오나오는대ㅡ 【약가】 완고용三원 중중용二원 경중一원 지방송료는대금인환이면 삼십전 약은회화이오 (약은경성신성당으로주문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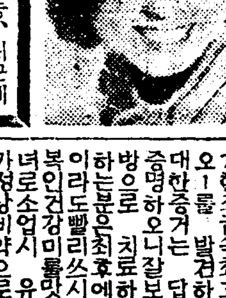
부종·폐병·륵막염엔 나오빼ㅡ가제일이오

폐병은 물치의 난병으로 일변에 사망자가 수십만명이되는데 종래의치료가 물절처 하엿다 입때까지는 즉접환부의 균만죽일 나고드럿스나 그래서는절대로안 낫는다 한편으로보하고 원기를 도아주어야한다 그뿐더러 잡식(雜食)하는 부분을 막는법이새로발명되엇다 즉삼관보혈강장보위제지(?)의 삼작용을일 시에 하여야된다 이작용을 식히는데 종래에는여러가지 치료 법이 잇섯다 약먹어서 곳치는법 주사로 약 어서는 보혈 이종의 가 잇는 데 상당히 당하 간이

아 엽할동안에대효를보앗 신기한 약이다 이러한 자신이잇슴으로 안심하시고 치료를하여도 별별약을 쓰고백방으로 치료를하여도 안나어서 고 통하는분은 일시라도 속히 나오빼 ㅡ를쓰시오 이러한분은쓰시오 구미업고 갈체하고 기침나고 담 뱃고 열이나고 목이파리하여지고 혈담밧고 피를토하고 숨이차고 원기가업고 가슴이아푸고 여구리가 절리고 갈비때도압프고 수축어찬 분부종중 폐병 륵막염 뇌 【약가】 삼기용五원 이기용十원 초기용五원 송료는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선금이면 무료 (약은 가루약이오 열흘만 먹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체증과속병엔 겡오ㅡ가제일이오

물먹은 체증 ... (체증·소화불량)에관한 ... 효력을보앗스니 ... 잘 긴 후 ... 위장상 가 ... 바이오



효력최극상 전세계에 유명한 최고의 경도만히드린 고세계적 대신 연한약제 보다 만 엇답니다 더 느다

무병이장자요 신외무물이라니병이잇고는 전세계재산이다1자기것이라하야도 소용이업고산해팔진미가눈압헤잇다 해도 가티 쌔어잇서도 먹고심지안이니 위장병자의일평생의요망은 무엇보다도 빨리우장병이 나어서구미잇서음식먹고진소화하야 건강한정신과건강한육체로활발스럽게 남과가티활동을하고십흔것이라는 더바라는것이업스리라 입때까지조치못한일시적효력업는 졸도거나전연하안드거나그렇치안으면 인이백이는중독하는 약을연복하여백방으로법보지료를다ㅡ하여도 특별한

그런데참신기한최급속최고귀한 위장신약겡오ㅡ를 발견하엿다。 그효력의위대한증거는 단지하는 감사장이 증명하오니잘보시고안심하시고백방으로 치료하여도잘안되여곤난하는분은최후에 겡오ㅡ를 일각이라도빨리쓰시와 인생의최대행복인건강을무사시오 이약은남녀로소업시 유아간기에신효하니 가정상비약으로 두시는것이우리위생상 건강상제일필요합니다

◇이런증세의분은쓰시오◇

◇소화불량 만성위장가다루 체증, 위산과다증, 위하수, 위확장, 구미업는대, 신경쇠약, 구식조선 밀로주체, 담체, 냉증, 식체, 회식등으로손체증이든지 단시간에 들습니다 약을 가루약인대하루에세번 식후 반시간후에 온수나 냉수에먹습니다

약 갑

완고용(頑固用)	한갑	三원
중증용(重症用)	한갑	二원
경증용(輕症用)	한갑	一원

지방송료 선금이면무료 대금인환이면 삼십전약가를우표로 보내도조습니다 (약은 경성신성당으로 주문하시오)

만일 무슨 약이던지 이상업스시와 특이성의 체질(特異性體質)로 병에 안맛거나 망고와 둘나는점이 잇거나 마음에 안맛거나 현저한 특효가 업거든 약을곳보내시오 청구하시는대로 하여드리겟습니다

京城西大門町留置所前(五) (제일은서양옴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 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국본부)

振替京城二三四三番·電話光化門二○九番

김장大學 ❶

열두가지반찬보다 배추김치한통

"…당글줄을모른대서야 부인네면목이나섭니까?"

음식솜씨로 한번 내로라고할내 보시려면 첫재 간장、된장의 장을 잘 당그서야 하고 둘째 김치 깍둑이의 김장을 잘 당그서야 합니다。 아모리 십이첩 반상의 그릇그릇이 모든 음식을 다 잘 맨들어 칭찬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장이나 김장과 가튼 음식 처서는 대접을 그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허영이 많흔신 요사이의 아씨네들은 그저 남의 눈에 잘뵈일 조치라든지 구자라 든지 고기구이라든지나 맛나게 하러고 애써 배호지 장이나 김장가튼때는 전연 풀아다 보려고도 안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반찬 이랍 솜씨가 잘하고 먹음마하게 맨드는 데에서도 장이라든지 김장이라든지 맛이아조 구처서 채피할 지경에 이르는수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

본래부터 음식중에서 쉬운듯하고도 실상 어려운 것이 **김장** 이 아니오니까? 그 아 하필 요사이의 아가씨네가 어여심에 못당그러것만이 아니라 배호기도 힘들고 솜씨를 내기도 힘들어 그러것이 아니오니까? 더구나 김장은 장과도 더 달러서 거의 지방마다 틀립니다。 틀거의 지방마다 틀리고또 른 그중에서는 서울,

서울 서도 장지내는지방으 요만큼 그 당그는법이 제일당그기 어렵겟지 떠지를 못하얏습니다。 그러니 김장을 아모리 잘당거보려야 당거볼수가 잇습니까? 김장맛이 굿다고 꿋그주인이씨의 음식솜씨를 탄하하여서야 넘어나 사정을 모르는

채망 설은 이 아닙니까? 신녀며선이라도 시골서 나서 시골서 큰 분들은 서울 김장을 어떠케 당그는 것이지아실까닭이 업습니다。 아니 이

갓쉬자는 살아 배호기 보다도 차르오나 서울김치의 주보조차도 볼줄이 아시기가 어려운 아들까고 외십니다。

×

시골 서는 아무리 김치를 담그어도 고작 깍둑이와 김치의 두가지뿐이 아닙니까 이이외에 또 무엇이 잇겟습니까? 그러나 서울로 이르면 첫재 김치와 깍둑이의두 분류분으로 나눈뒤 다시 김치를 통침이 젓국지 섞박지 짠무김치등으로 나누고 또깍둑이도

가루 고초로 담그는것 고추로 담그는것 곤쟁이 젓에담그는것등으로 나눕니다。 또가른 젓국지 가른 깍둑이에도넉는 것이다 각각 당그는 법이 다각각이만큼 일일흔 다르지안하나마 여러가지로 달

조선 음식의 여름이 지는 아모래도 서울의 대가서 댁이 올씨다。 서울서 대가서댁의 김치의 음식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떠케해야 좀 배워 볼까요? 사람의 일은 다 마찬가지니 우리도 대가서댁처럼 해어야하고 김장강의를 열러 고합니다。 첫강봉로 노량은 따하와 지금 김치하시는 신녀성 여러분 아씨네들위

보지 를 못 할까요?

×

그러케 생각하시는 신녀성 을 풀도 청하지 안하오니 안심하시고 수내럽하시를 바랍니다。

家庭

이러케 생각하자 "한번씹는데 일년은 더산다"

먹는게 살로가고 무병하자면 「그저 오래씹으시요」

배ㅅ속 섬하게 잘나간그속에도 만흔 영양분을 아깝게도 그대로 내버리는일이 보통입니다。 아 개가 왜 똥을 먹습니까? 아모 영양이 업는것이라면 먹을 리가 잇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만히 씹어서 될수 잇는데까지 그속에 든 영양분을 헛되게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히 먹어서 맛이 아니라 만히 씹어서 좃습니다。

×

변전 **미국의어떤부호** 가 막대한 상금을 걸고 오래 사는 비결을 모집하얏섯는데 그 결과 음식을 오래 씹어 먹으란 론문이 당선되얏더랍니다。 삼신산 불로초나 금잔의 옥이슬은 장생불사를 꿈꾸는 녯사람의 천치짓이오나 오래 씹어 먹자는것은 수를하고 시픈 현대인의 과학적 노력이랍니다。 본래 빵가튼 것은 푸석푸석하야 오래 씹어침을바르지 안하면 넘기기 어렵지만은 밥가튼것은 물스그가잇서 그냥 삼킬 수가 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동양사람들은 서양사람보다도 더 씹지를안는 버릇이 생기어 잇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넘어 씹으면맛이 업다고 하지만은 어래 넘어 안 씹으면 맛을 거의 모르게 됩니다。 그뿐이아니라 넘어 씹어먹으면맛을거의 모르게됩니다。 그뿐이아니라 넘어씹어먹어맛이업다 치더라도 영양으로 보아서 그것들은 희생할수박게업을듯합니다

★……때을먹식음……★

꿀떡꿀떡 삼키어 버리다가 체하면 엇저 「그저 꼭꼭 씹어 먹어야 아모탈이 업지」 밥상머리에 안즈서도 다심한 로인네는 그 자손들을 대하야 말슴이 만습니다 만은 어린 아기들이야 놀기 밧부고 뛰기 바뻐 그러케 하는아히가 드믑니다。 『빨리 먹는다고 체하긴 왜 체해』 『속만 튼튼하면 무쇠도 녹을텐데』 어린 애기네는 고사코 젊은신네중에도 말슴을반대하는분이 만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오래 씹어서 먹어야 합니다。 씹는 정도에 딸아서 살로도 더 가고 뼈로도 더 갑니다。

첫재 딱딱한 것, 단단한 것 또는 질긴 것들을 아래우ㅅ니로 고로고로 부시고 갈려서 넘겨야만 소화가 잘 될 것입니다。 원로 들어 가서 위에서도 움직어다 폇다 하야 가며 소화시키지 안는 것은 아니겟지요만은 아모러니 송곳갓고

칼날가든 이에

다가 대겟습니까? 설사 위의소화작용으로 충분히 소화시킬수 엇다기로니 위를 넘어 들볶가서야 도리어 목이축지지 안켓습니까? 둘재는 음식의 삭삭이 침을 바르고 또밥려서 흉신부처어가지고 넘기어야만 합니다 위장으로들어 가서도 위액이니 담즙(膽汁)이니 소화를돕는 액체가 업지는안치오만은 암만해도

침이부족해서야

소화가 잘될수 잇습니까? 구지 침을 앗기시지 안할바야 침을 잘섞해서 넘기는것이 조치안습니까?

×

제아모리 조혼 영양이 되는 음식이라도 잘 소화가 되어야 효과가 잇지 소화가 안 되야서는 별 효과가 업슬 것이 사실입니다。 조혼 영양이 되는음식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는이 보담은 차라리 그만못한 음식을 잘소화시키는 편이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소화가된다 안된다 말하는 것은결코

배탈이난다거나

안난다는 의미만이 아니올시다

백공잔 金湘旭

부인의『냉』은 대개빈혈에서

◇몸을덥게하시요◇

겨울이되면 냉성(冷性)을가진 부인들에게 제일 괴로운때입니다 냉성은 중년부인만이아니라 어린처녀나 남성을물론하고 빈혈성(貧血性)이잇는사람이면 쉽게생기는것입니다 혈액중에 적혈구(赤血球)가 주러드러서영양이완전히 섭취되지못하는때의남성호르몬『녀성호르몬』의 분필감소(分泌減少)로부터 생깁니다 성그관(性器官)의 긔능이 위축되면 혈액에 변화가이러나며 혈액순환이 잘되지안는때문에 생기는것입니다 이것을 쉽게말하면 남녀를물론하고 혈액이잘순환되지안는데서 체냉(體冷)해지는것인데 그중에도 가장고통을 만히밧는것은 역시중년부인입니다 중년부인의 냉증경과를 보면 대개는 만성냉증으로 고통을 밧는분이 만습니다 자궁과 란소에 고장이잇기때문에 수족에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압박되며 순환이잘아니됨으로 냉증이생기는것입니다 이와가티 직접혈관이 압박되지안는경우인때도 교감신경(交感神經)이 압박을밧게될때는 혈관운동이 자극되여서 혈관의 수축을 이르키는경우도잇습니다 이러케되는경우도 역시혈액의 순환이 잘되지안는것과 가튼증세입니다 또는 먼저말한바 녀성홀몬의공급부족으로부터 생기는 자궁과 란소의 발육이 충분히 못될로 신체가 차게되고 따라서냉증이 생기게 되여서 허리와다리가 차고 아퍼서 괴로울뿐만 아니라 억개도 저리고 눈도쑤시며 두통과 수면이잘되지안는 고통을밧게됩니다

이부인의 냉병은 그병의원인을차저 근본적으로 치료를하지 안흐면아니될것은 물론이겟지만 일시적이라도 몸을 차게해서는 아니됩니다 대개이런병을 가진 부인은 눈자위가검스고 체격이 조치못합니다 지금은 치운절긔이라 녀자들은 될수잇는대로 몸을 함부로 차게굴리지안토록 주의를시히지안흐면 장래의 적지안흔 불안의원인이될니다

家庭醫學

아랫배가아픈데

問 저는 삼십일세된남자인데 사오년전에 무거운짐을 아랫배에부치고 들면서 배힘을 주는순간에 아랫배가 쩌리하며그후부터 통증이잇고 무엇이쑥나와잇가 업서지고한니다 (때吉生)

答 복벽탈장(腹壁脫腸)이지도 모르겟습니다 탈장대(脫腸帶)를 사용해보십시요 大學病院伊藤內科 朴秉來

九日 (土曜)

◇午後六時 十一月에난偉人이야기 辛鳳祚
◇同六時二五分 趣味講座 등이야기 李容卨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記念講演 健康增進에對하야 吳兢善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 失業選手 放送劇新人會 演出 李如水 效果 效果班
◇同八時 제비가外 一、제비가 二、선유가 三、유산가 四、달거리
◇同八時三〇分 (東) 獨唱 三浦環 孫香蘭 張香蘭
◇同九時 伽倻琴倂唱 伽倻琴 金海仙 大笒 朴鍾基 杖鼓 池龍九

十日 (日曜)

◇午後零時五十分 하-모니카獨奏 全鮮하-모니카競演會入賞者
◇同一時二十分 流行歌(레코-드演奏)
◇同六時 回顧奏 京城四重奏團
◇同六時二五分 心田開發講話 溫故知新 館 庚山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記念講演 生活改善에對하야 朴勝彬
◇同八時 라듸오 드라마 失業選手 二景 (配役) 李元信(失業者)…金海雲 金順子(그의안해)…崔庚善 朴萬洙(順子의친구)…吉七水 金鐘洙(順子의父)…李海星 방송작사…金蕙園
◇同八時四〇分 노들江邊外 一、離別歌 二、노들江邊 三、사발가 四、늴늬리야 五、密陽아리랑 六、어랑打鈴 林明月 細笛 秦鶴洙 奚琴 李忠善
◇同九時五分 歌詞 一、길軍樂 二、黃鷄詞 金蓮紅 趙点紅 大笒 金永根

十一月十一日(月)

◇午後〇時五分 眞秋의사랑 朴昌遠
◇同三時一五分 家庭講話 毛絲編物(一)(레스트使用) 張和順
◇同六時 科學이야기ABC 李萬珪
◇同六時二五分 講話 (AK子的) 齋藤實 國民精神作興의가을 譯講 曹在浩
◇同七時三〇分 國民精神作興記念講演 生活改善에對하야 朴勝彬
◇同八時 (大) 女聲合唱 一、祝歌…빠그너作曲 橘靜雄編曲 二、昭和의日本…윌리암스作曲 橘靜雄編曲 三、都…모-차르트作曲 四、갈音…弘田龍太郎作曲 五、歡喜…그롯크作曲 橘靜雄編曲 大阪放送合唱團 指揮 福井多喜雄 피아노伴奏
◇同八時二〇分 唱劇調 一、短歌 아서라世上事 二、唱劇調 水宮歌 金傳守 鼓手 丁元燮
◇同九時 樂劇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 一、合唱 도라지打鈴 二、獨唱 (淺影子) 다이나 三、舞踊 東洋의薔薇 四、樂劇 明朗한상등이 二景 裵龜子 脚色 配役 아레킨(弟)…李英子 아레킨(兄)…裵龜子 弟의戀人 로젯트…洪淸子 兄의戀人 넷타…裵淑子 外출주는 裵龜子樂劇團사람

曆

十一月十日 (日)
舊十月拾丁亥(大)十五日
庚寅·木·畢·平
●移徙·裁衣·動土·上樑辰時·開市·納財·安葬·吉
●立冬八日(舊月初十日)
●小雪二十三日(舊月廿六日)

短篇小說 繁榮記 【8】

金起林 作 / 安碩柱 畵

「밤에 색시구경을 오세요」하는 서울치의 말소리를 뒤에흘러버리면서 창호와창원이와 영만이는 징의연마을 돌코 바게나왓다。 어느듯 하늘은 으스름 빗에 물들기 시작하엿고 거리의 웅지쪽에는 수묵가튼 엷은 그늘이 벌서 싸늘하게 깔렷다。 창호는 아츰에 안해와싸호고 나온일을 갑자기 기억해냇다。 오늘 지금까지도 그러고잇슬 안해의 잔뜩꾸겨진 얼굴이 그의 눈아페 떠오른다 그는안해의구두 두장을 해제할 전술을 머리속에서 이리저리 궁리해본다。 다리목에서 세사람은 갈라젓다 거리에서는 전등불이 불시에켜지면서 지나가고 지나오는사람들의얼굴과 얼룩달룩하게 꾸며노흔 가개얄들을 밝힌다。 어둑식한 뜰악에 들어서자 히미한 람포불에 저즌 창문안에서는 아모 기척이 업다。 창호는 기칠을크게하고 일브러 발ㅅ을 쿵쿵굴러서 발ㅅ소리를 내면서 문으로가까히갓다。 될수잇는대로 「눈을 찌푸리고 미간에 주름살까지 세우고 문득떼다。 그것이 그가 택한 전술이다。 그러나 뜻바께도 그를 맛는 안해의얼굴은 아츰보다도 더욱 부드러웟다。 아버지의 혀상한눈짓에서 이번에도 한바탕일이날것을 예감한 영수의 겁낸 눈동자가 창호의얼굴로 향하야 자조깜박인다。 창호의 마음의긴장은 차츰풀어지기 시작햇다。 커-다란옹배이가 방바닥에 펄석숙안자 도모지 분노를 풀지 아니한 목소리가 밥상을 청하는 것을 듯고야 영수의 작은 손아귀는 꾸겨서 틀어쥐엇든 모자를 슬그머니 노아버린다。

안해는 생각한다。 다달이 일정한 월급을 밧는다고 하는것은 얼마나 자미스러운 일일가? 첫재로 게에 듣수가 잇슬게다 둘재로 사공이라고해서 밧는천대를 뭇사람의 눈짓과 말씨에서 어더보지안코도 지날수 잇슬게다。 남편의 월급과 영수의 월급을 합하면 에그머니 삼십원은 넘겟네。 술을 슬기는일 한가지만 버리면 남편은 실상흠이업는 사내다。 그러케 사내답고도 인정머리잇는 사근사근한 남편이야 또어대 잇슬가? 비록 때때로 안해의 머리채를휘여잡는 손버릇이 잇스나 그만한

[illegible] 노치지안으려는 안해를 노려보는창호는 안해의말이 끗나자마자 숫가락으로 와락와락 물마리를퍼서 입에넣는다。

「그럼 우라두 내일일 모레일 날마다 걱정하쟁이루 남처를 맘노쿠 살아보쟁이캣소。 부자간은 월급으밧수 나는 삭바누질이랑 삭빨래랑하구……」

창호는 물마리를 다먹새고김치국까지마시후 상을 물리고나서 호주머니속을 뒤저서 겨우 먹다남은 「마코-」도막을 끄집어낸다。 불을 부처서입에 물고 한꺼번에 연기를 한뭉큼 빠라서는 게 내뿜는다。 입을 가리는 당배연기속에서 그의 두눈은 허공을 바라본다。 두터운 입술기가 무겁게 떠려진다。

「나루 남처럼 허리가 좀 곱상스럽햇드문 지금쯤은 회계원은 몰라두 면서기는 돼슬게오」

안해는 깜작 생각해냇다。 남편은 열네살때에 면소심부름을 올드러갓다드라。 그러나 어느날 아츰 면장의첩이 두부를사 사오라는것이 하도 아니꼬아서 돈과 그릇을 누이를주어서 돌려보내고는 면소에서 그러케를럼도 다시 가지안코 그냥 분러 낙시대를 돌러메고 바다로 나갓답다。 그것이 바로 그의 사공의 이력이 시작된 시초라고도 하렷다。

짓이야 아니하는지 내가 어덧잇스리라고。 요에는 그러기에 수가편다고한게지。

안해는 지난겨울에 선수첨을처준 무녀의말을 속으로 되푸리해본다。 ——요에는마지 혼방이오 상사람에는 조혼소식을듯겟소。 몽으로 부터귀인이와서도아주겟소——그때 무녀는 눈을 나리감고 산가지를 상우에서 거두면서 자못확신을 가지고 단언햇다。 그는 무녀에게 이십전짜리 것을 지금와서 후회한다。 삼십전은술집그래지

「여보오 인제는우린두 사공이란소리도 앙이듯게됏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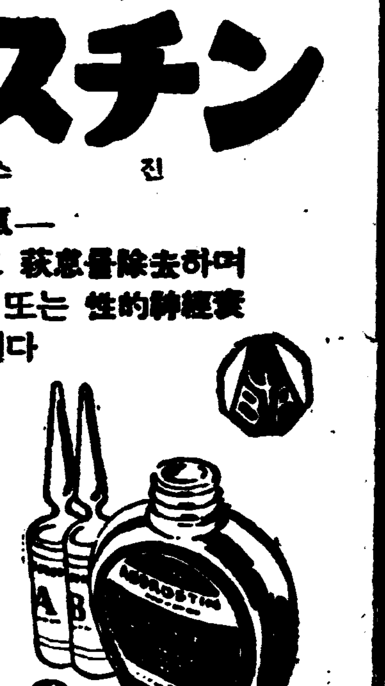
「왜?」

남편은 안해의 또이상스러운 말에 도리혀 불안을 느끼기시작햇다。

「저어 영수대기는상점에서 인부르하나쓴답메 월급은 이십오원이람메。 그래서 저에가 당신 애기르 햇등이 래일 당신으 대

皮膚 チャージ 차-지
◆指間水虫·股間습증
◆顔·手足거츤데
근질근질하는皮膚病
무좀, 버짐, 음낭습증, 여드름, 부름, 顔·手足거츤데, 毒虫·蚤·蚊·南京虫等害에는特一瓶을……더러히지 안코압호지도안코深部에滲透浸法
定價 一冊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山崎帝國堂

強力 男性ホルモン(호루몬) アンドロスチン (안도로스친)
—潑剌한生氣—
精力을 旺盛케하며 精神力을도읍고 疲憊를除去하며 作業能力을增進식히며 老衰를막고 또는 性的神經衰弱·身心에따르는 諸障碍에 適當된다
去勢鷄의 鷄冠發育에 依한호루몬檢定法에 依하여 本劑를 쭘與한去勢鷄(向左)와 給與치안흔去勢鷄(向右)
本劑는 新鮮한 雄性生殖腺의 全有效成分(成溶性及 脂肪性호르몬類)을 包含하여 生物學的 檢定下에 效力을一定하게하며 世界各國의 醫學界의 實用되고잇다
●注射液·錠劑●
內服用 錠劑에도 顯著하게 그效力을發揮함
內服用錠劑三十錠入(定價三圓八十錢)外二百五十錠入 及注射六管入五十管入等
有名藥店百貨藥店에 잇슴
文獻은 大阪市東區瓦町三和ビル內 瑞西バーゼル化學工業會社 日本學術部에서 郵呈
日本總代理店發賣元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特約店 東京小西新·島田·三共



十一月七日ヨリ 特選大公開 大都映畫超特作時代劇 階下十錢均一
中島宝三監督作品
疾風の劍士 總篇
阿部九州男、琴 絲路主演 三城輝子、澤田敏之介、稻葉義男、久緣、久松玉城、久野あかね、他總出演
轟然! 前先鋒へて火蓋は切られた 明治維新の火薬は遂に射撃されたであらうか、松山十五萬石の危急存亡の時若後藤喜大郎君にはかに御馳走八百八譜の本陣を突く……
RKO超特作全發聲日本版封切
空軍の覇者
ウォルター·ルーベン監督作品
リチャード·ディックス、エリザベス·アレン、ラルフ·ベラミー主演
ロッキー·ツーソンの名機は襲撃一に高まつた一機、二機、彼の記録は遂に四十二機を射落し……
大都映畫超特作現代劇
ハヤフサヒデト 一人二役主演大活劇篇
闇に叫ぶ猿
琴路美津子、谷定子、小笠原藤、杉山昌三共演
大都映畫封切場
櫻井町 電本 八金 大正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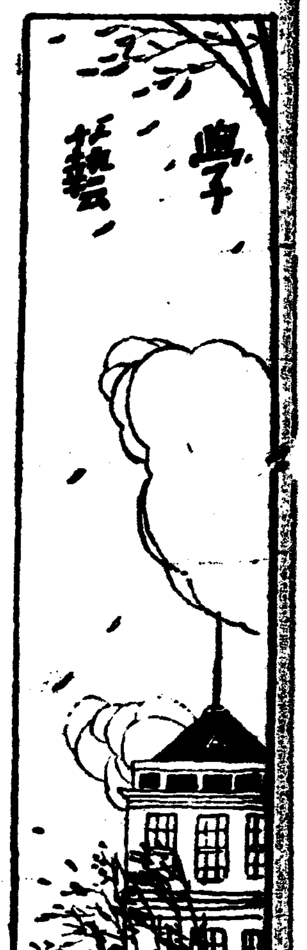
十一月七日より 晝夜三回第一回十一時半 第二回三時第三回六時半
松竹ニュース
月と耳の新聞 第二三三一報
松竹蒲田ナンセン篇
宗本英男 監督
坊やと日曜日
松竹蒲田珍優總出演
オールトーキー
お嬢お吉
大衆文藝の鬼才川口松太郎 監督 富岡遠之助
蒲田第一映畫提携 最初の時代劇
蒲田ヨリ 特別出演 梅村容子共演 林敏夫
天性の美誌を資本に娘だてらにあられもない白波渡世二の腕に眞紅に散る牡丹の刺青纖火の氣性に男もたぢろぐ!
松竹蒲田超特作哀調篇 原作脚色 伏見晁 監督 佐佐木康
眞白き富士の根
及川道子、本郷秀雄、水島光代 花村千惠松、小林十九二、吉川滿子 上山草人、岩田祐吉 共演
◎今週はおわすれなくハンカチを御用意してお越し下さいでないとあなたの御召物かよごれます
洋劇專門 浪花館

十一月九日ヨリ 特別大公開 東西三大映畫の併立興行、大人三十錢大破額提供、中央館獨自の大奉仕週間
新興キネマ超特作サウンド版 上島量脚色、監督上手二郎
錦城可憐の乙女が悲戀に泣く瀨來水鄉哀詩 伏見信子主演
戀の浮島
立松晃、三桝豊、小宮一晃、藤野秀子 風に帆まかせ流は波まかせ、小たしや小舟にサテ身をまかす、明の言葉に引かれて戀を語る三人の身に悲しい運命のいたづらが……
ウオーナー·バードンプロダクション古英邦映畫
眞に古今未曾有の驚奇冒險映畫
アンガ
新興京都撮影所新特作時代劇
オール讀物號所載野村胡堂原作
押本七之輔監督 錢形平次捕物帖
(サウンド版)
濡れた千兩箱
小金井勝、泉清子、櫻井男、東良之助共演
永樂町 電本三二 中央館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
お江戸日本橋
猛將 坂東好之助主演 ニュース·短篇紹介
大下宗治監督作品
松竹키네마社特作時代劇 百萬兩팔의 秘密
모로코의血煙
百萬樂가다하는戰地에 血煙中의ヨ로시싸움하야사와가 는大冒險作品 ……
夜間演劇 劇場公演 全二十四景 ……
十一月九日부터 晝間二回晝間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午後時半까지 以後 正午十二時부터
中國事變公演 夜十二時부터
實演 개스커버·어무스 合唱 二幕
文藝部編 洋劇 由童園의哀話 全二幕
文藝部提供 家劇 孝心 全二幕
戰時諧作 三景 上海街의覆面七人
連鎖劇 世界의偉業 村昌悼의大熱演

十一月九日부터 三日間大公開 東西洋映畫名篇最當司上映 每日三回興行正午三時半、七時半 大衆料金 椅子席二十五錢 階上十五錢、階下十錢
新興키네마社超特作『愛欲의運命』
原作 川口松太郎氏 監督 石田民三氏
明治十三年
妖魔 鈴木澄子 主演
明治에倭古的奔國氣에누이들어가는西洋惑的毒花의香이강이야妖艷澄子의情熱을발치여明治情緖映畫의最高篇!!
파라마운트社超特作映畫全發聲日本版
監督……잇칠·라이젠氏
絢爛한殺人
갈루란스氏、깃테이가라일孃 잭크오-키-氏、가롤드·마이孃 主演
봐니테이劇場舞踊團特別出演、近代아메리가레뷰-最高의樂藏를자랑하는밤의大歡樂境봐니테이劇場의燦華스런初日의幕이 열니엇다 世界에서選出된美人群의그肉體美스타歸國의레뷰-이雄々한米國最高의으로이 아말노 避暑的인레뷰-의頂天!
鍾路四丁目 電光二七一二番 第一劇場

十一月八日부터十二日까지
裵龜子樂劇團
惜別興行週間
(每日晝夜二回興行晝間午後一時開演夜七時開演)
東京에先約公演때문에當劇場에出演을不得己하게되어 裵龜子樂劇團은 都의人氣를集中하여 大公演할 로! 總力量을集中하야豪華한陣容으로 諸客位를기대리고잇습니다
(1) 崔獨鵑作 樂劇『피리의奇蹟』全景
(2) 東劇文藝部提供 樂劇『雙童의結婚』二景
(3) 寸劇『아첨하다逢變』一景 少女歌劇 樂
外興味出演
舞踊獨奏 三曲·舞踊 … 크로빠타딴스·獨唱 …
스『明朗한을놀는』·舞踊부르의희팔
빤비탄프린스·습노딴스·舞踊리
十발·狂스딴스·탐부린스·朝鮮
新舞踊『장부사』·新舞踊 도라
「캐노 타-딴스오 라이트」
同時封切映畫
英國파몽社超特作 怪奇映畫
보리스·카로프主演
리、에스·헨터 監督作品
怪奇映畫의白眉篇
「月光石」 全九卷 外小品數種
竹添町一丁目 電光三三三番 東洋劇場



不安의哲學者「하이덱겔」

―그現代的意義와限界―

⑦ 朴致祐

自我自身은勿論이고 其他個個의 存在者及 一般으로 存在一般에 關해서 우리가 이것들과 어떠한 關係(理解、實踐、認識)를마즐수 잇는것은 다못 存在의背後에서 日常으로숨어잇스나 人間存在의 根本的開示性인 不安의 明夜에만

顯現되는 저「無」의世界에다 우리自身을 끄러너흠(超越)에依하야서만 可能하다는意味의말을 力說하고잇다 이簡單한 叙述만에서도 이미짐작되려니와 自我와世界에 關한 把握은 다만「不安」을 通하야「無」의 世界에突入함에 依하여서만 可能하다는말과 다름업는것이다。다만注意할바는(첫재로) 그렇다고해서「無」는 어떤때는잇고 어떤때는 업는 그러한것이 아니다 어데서던지 언제던지(아니 오히려 時空的意味를떠나서 有의世界의 背後에서自身의否定作用을通하야 有의世界를 可能케하는 그러한 積極的인 存在(?)인것이나 사람들은 日常은「有의 世界에 빠저서 살기때문에 이「無」를 보지못함따름이라는點。(둘재로) 不安도亦是엇던때는잇고 엇던때는 업는 그러한 한개의「性質」이아니라「世界內存在」라는바로 그것이 本質的으로 具有하는 根源的인 開示力인것이나 다못 사람들은普通으너머 世俗만 빠저 살기때문에

그 동안은「잠자고」잇슬뿐이라는 點。이두가지點은 特히 留意해둘 必要가잇다。웨인가하면 根本的思想에잇서서는 同一하면서도 이點때문에「하이데겔」과「야스펠스」는區別되는것이기때문이다。

六、限界

以上과가튼「하이데겔」의 思想에 對한 批判으로는 賛否兩說의實로區區하다。「파울·멘첼」이나「니코라이·할트만」가튼 사람은嚴然批判的立場에서 말하야「하이데겔」의 哲學은 結局은 人間中心主義、主觀中心主義의 思想에 不過함으로 必然的으로 相對主義的 誤謬에 빠지게되는것이라고 하며「막스·미리안·뻭크」는「하이데겔」을가르처 帝國主義時代의 代表的인 哲學者라고말하며、「캄·발마」와가튼사람은「루덴홀프」로부터모-든「볼쉐비스트」에이르기까지의 어느公公然한 反宗敎的分子보담도「하이데겔」이야말로 더한層 危險한 害虫이라고까지 辱說을퍼붓고잇는가하면 反對로危機神學者

辨證法的神學者인「부룬넬」과가튼 사람은 오히려「하이데겔」哲學에對하야 적지안흔 共鳴을 表明하고잇는것이나 大槪는 이後者의 意見이 正當하다고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一一히 이러한批判을 探索할 餘裕를 가지지못할뿐만아니라 또한그러할 必要도 업슬것갓다。웨인가하면 이들 諸說들은「하이데겔」哲學이 가지는바 現代的意義라는가 또한 이와同時에 이 哲學이 必然的으로 가저야할「限界」에關해서는 一言의 明示도뵈여줌이 업기때문이다。이것은오히려 當然한일이라고 할수잇는것갓다。웨인가하면 그들은 언제나 哲學은哲學이기前에 무엇보다도 몬저 한개의「思想」으로「이즘」으로서만 問題삼어저야만되며 그러기때문에무엇보다도 몬저「이데오로기」的性格에對한 批判이압서야 만된다는 事實에 盲目이기때문이다。그러면 대체「하이데겔」哲學의 現代的意義란엇더한것이며 그 限界는 어느곳에 잇는것인가? 大膽한 放言이

許容된다면 우리는다음과가티 말할수잇슬것갓다。即 그의哲學의現代的意義는不安을 通하야 無、死、良心等에 直面함으로 말미암아 人間存在의 運命的인 有限性을깁히 覺悟함으로써 現下人間이當面하고잇는 危機打開의 一路를 求하여보자고 애를쓰고 잇다는 그點에잇는것이라고。

張赫宙君에게 보내는公開狀

⑦ 文壇페스트菌論爭後感

金文輯

藝術家的手腕을 보여야 될때는 例外업시「朝鮮」이란쓰핑크스(Sphinx)뒤에숨어서 例컨대「大監」「令監任」「溫突」과가튼不可解의 單語만 내밀면서 그야말로 一擧兩得(!)으로 地方色(!)을 보일려는것이다。

君이 作品中 第一地方色이 濃厚하다는 이「ガルボウ」一篇에정말 地方色이잇느냐 업느냐?이點을 나는 作者에게 뭇는다。「市場」가튼것은 잘만쓰면 한두술만써도 天下無類의 地方色이 나올것인대 그냥 市場 市場하니 그러면 朝鮮「장」이 日本의公設 또는 常設市場 或은廉賣場과 갓단말인가?

대개 地方色은 크게말하면 民族의色彩요民族의色彩中가장濃厚한 色彩는民謠인것이다。이作品에는 題材上잘만나오면 학다-스의 民謠가나와도 실ㅅ증이 안날것인데웬일인지 作者는 단 한바탕의「소리」만을 내노앗슬따름이다。그소리란「エヘ、エヘ、エーヘヤ 山川美しとて、吾ここに來しに非ずいとしのきみにあひにたに吾來れり」唐天竺을 헤맨들이런歌詞의民謠가잇슬가? 民族의 辱이요朝鮮의붓끄러움이다。

「エヘエヘエーヤ」는정말조타 原稿一百몃장中 唯一의 地方色的音律인만치「エヘエヘエヘーヤ」는조타。土聲을써서 이만한 効果를 낼줄아는作者가 그다음에오는「山川美しとて」는웬일이며「吾ここに來しに非ず」는웬일이며「あひたさに」는 어찐수작이며 더구나「吾來れり」는무슨 曲調인지를 알수업는것이다。慶尙道에는「朝鮮滿洲日本」村에이러한 民謠藝術이잇단이냐?「エヘエヘーヤ」는 가정말악갓다。

[illegible] 그러나 나는 小說家로서의 이 作品의 美點을 들으는배안이다。그것은단시 一個所이다。即「ガルボウ(彼女の名は牽牛とか何とか言つたが、私は今はつきりおぼえてゐないから、たゞガルボウと呼ぶことにする)も……」라는五十一字를包括한 두줄의新味이다。小說家로서 누구나 다가질수잇는平凡한手腕이나 東京讀者에게 新味이지 무엇이지하는 이름을 버리고「ガルボウ」라는 普通名詞로서 固有名詞로 代用한것이 作者로서는 當然한일이나 무엇보다도 신기혓고 小說家로서의 君의 手腕을보인 唯一의 個所엿든것이다。

그러나반드시「カルボ」라고써야 할、갈보를웨「ガルボウ」라고쓰는지는 그理由를 나는아직 몰으고잇다 비록「ヲ」式 發音이요 누구式「片假名」라고 强辯한다하드래도 나는 絶對로否認한다「ガルボウ」라는發音은 곳혜「ウ」字마제면한때는 朝鮮의女王이엿고 世界의戀人이엿든「グレタ・ガルボ」의ガルボ와되게는 적어도 英獨佛、日、支、五個語中에는 업스리라는것을 말하여둔다 그러고 끗흐로 한말할것은 藝術

[illegible] 文壇에서의 地位와 作品을 云云함에는 [illegible] 그렁으로 張君이어떠文壇에 그다지地位가업서야 될理由는 그가新聞에 세계박거 小說家쏘지안이엇다는데 根據를둘것이안이요 發表한 三四篇이 다가러 第三流의 水準을 오히려二三尺式떠러젓다는 事實에두어야한다。

芥川龍之介의 有名한警言、人生은 一行의「보-드렐」에 미치지못한다는말은 [illegible] 藝術家의 情熱로 解釋할배아니다。우리는 [illegible] 前年에 東京까지왓든 [illegible]의 貞夫人의 作者――佛蘭西의 牧師라고 볼수잇는「데코브라」를 夭折한 猶太演劇家의 [illegible] 人(劇作家「삽벨」과「크라이스트」以上의 藝術家로 認定할것인가?

아니다 한카라랄의 金剛石은 千斤의 瑪瑙보다 高價할것이니 佳作이아니거든 도리혀發表하기를 상가하는것이 조치안흘가한다 그리고 그대의 健康을빌면서 끗친다。

――十月末、서울서――

雙眼鏡

科學隨筆 (二)

鄭槿陽

예기까지오니 한가지생각나는 바가잇다。다름아니라 近者 여러사람에依하야 論爭이 거듭되여잇는 物理學에잇서서의 偶然論과 必然論에關한 問題이다。나로서 이問題를 討議할 資格도 能力도 가지지못하엿슴으로 이問題를건드릴수업슴은 遺憾이나 다만 이論文과 關聯식혀 생각나는바를 卑俗히比喩해보려는바이다。日本서 一部文士에依하야偶然文學論이 主唱되여잇는데 이論者에「하이젠벨그」에 依하야提出된 新量子力學에 잇서서의 不確定性原理를 끄러내여 그

內容을 豐富히하려고하엿다 그러나 그들이不確定性原理를 自己들의 主張인 偶然文學論을 理解식히며 或은 證實식히기爲한 卑近한 比喩로써 다른領域의 學說을利用하엿다면 別問題이겟스나 萬一 自己네의 文學論을 量子學領域에 屬한 理論에 適合함으로써 自己說의 妥當性을 꾀하라는 重圖가잇다면 큰錯誤임을 免치못할것이다 偶然文學論과 不確定性原理와는 서로 比喩할수는잇스나 서로比論할수는 업는것이다

또 이와反對로 單純한比喩를 比論으로 생각하거나 또는比論을 學說로 생각함으로써 큰誤謬를 이르키는수도잇다。가튼自然科學領域內이면 서로 反省吟味할수도잇슬것이나 自然科學上의 事實이나 學說을 다른科學에 比喩로써 引用하엿슬때 이것을 比論乃至學說로 誤認될때에는 큰錯誤를 이르키게되는것이다。新量子力學에서는 電子의 位置와 運動을 同時에 精確하게 測定할수가업다는것이다。以今 電子의 運動을보려고

光線을비치면、電子는 互衝突로因하야 옴직일것이요 그本來의 速度를알수업다。速度를 正確히알려면 位置가不分明하여지며 位置를分明히하라면 速度를 알수가업다。이리하야 電子의位置와 運動을 同時에 精確히 測定할수는업다는것이다。여긔서 所謂 不確定性原理가 提唱되고 新量子論에서도 여러現象은單純히確率的으로表現할수 잇슬뿐이라고한다。

이學說은 認識論的 關心을가지고잇는것이 한特色인만큼 結局은 한世界觀에關한 問題로되고마것이다 여기 必然論者와偶然論者가 생기게되엿다 偶然論者는 從來必然이라고 생각되여온바法則은 其實은 蓋然的으로서만 成立할수잇스며 이蓋然性인것의 根底에는 所謂量子現象이存在하야 우리들은 아무런因果關係도 차즐수업다고한다 그러타면 우리들은 因果律을 固執할수는 업다고한다。

이리하야「神은 偶然을 사랑한다」고 말하고잇다。이와反對로必然論者는 다음과가티 反駁하고잇다。그러면偶然論者는

偶然이 必然에서 機械的으로 分離되여 서로對立되여 容納할수 업는것이라하야 잇는것가티 생각한다。新量子學說이라는것은 機械的因果律代身에 確率로써 代用하엿고 力學的 法則性代身에 統計的法則性을賦與한데不過하며 自然에잇서서의 法則性은 細密히 維持되여잇다고한다。이리하야 自然은 辨證法的인 끈칠업는運動에 잇다고하며 必然과 偶然은 辨證法的이요 無數한偶然을 通하야 統計的으로 必然性이 貫徹되고잇다고한다。

世界觀으로서의 偶然論과 必然論과의 批判은 나의能力이 못되나 나의일은 偶然論文과 問題와를 比喩해보려고한다。이것이 比喩에서 떠나가 比論의 域에까지 이르를넘지는 爭論을 要하겟지만은 나는 가벼이두개를비겨 생각해보려고 한다。

肋膜炎가티 누구나알수잇는 可視的인 世界에잇서서 그곳에滲出液이고여 膿液性炎症을 이르킨다는것은以前부터 잘알고 잇는바이엿다。그러나 微視的인世界、即 各臟器의 實質細胞間隙內에 滲出液이고여 肋膜炎에잇서서와 同一한 過程을 밟는

炎症이 생기리라는것은可장 說明하고 證實한 事實로서 說明되바 이엿섯다。이것을 比喩로하야 다른 모든物理學에 잇서서 因果法則이 成立되는데 量子學에 잇서서 否定乃至 確率的으로만 表現할수잇다는것은 무슨緣故일가를 생각하야보자。可視的 世界에도 妥當하든바는 微視的 世界에도 妥當하지나 안흘가。以今까지의 物理學은 이가려생각해왓섯다。

慶北民謠의 特異性

民謠研究

⑤ 金思燁

以上으로 童謠를除外하고는 甚히不充分하나마 慶北地方의 民謠의全貌를 살펴왓다 筆者가 아직修學의途中에잇고 民謠의領域에 沒入한지도 時日이얏음으로 充分한考究는못하엿스나 斯道에 獻身할覺悟만은 남에게 지지안흐리라고 自負하나 讀者는 모름직이 이번의不備도 後日의成果를기다려 寬恕함을바란다 今年冬休에는慶北地方의 要所要所를 再次探訪하여 或今番蒐集中에 遺漏가업는가 調査함으로써 慶北地方에잇서서의 採集은 그만두고 明年부터는 慶南及全羅道에 着手할心算이다。그리고 이번機會에 考察을 못한童謠는 이또한 民謠의 母胎요 原型인 重要한것으로 汎然히 看過할수업는것이나 後日의 宿題로미룬다

至今急先務는 民謠의蒐集이다 朝鮮에서도 일즉이 民謠의 重要性을깨달아 蒐集에 着手한이가 한두사람안이나 그結果에잇서서는 隔靴搔痒의感을 免치못하고 社會的으로도 理解가적다。元來 鄕土藝術의 研究와 發展은 一部少數의 研究者의 힘으로 可能한것이 아니고 大衆의 理解支持와함께 社會的團體가이를 聲援하여야한다 각가운 例로는 日本內地에잇서서도 明治三十八年 文部省內文藝委員會에서 計劃을하여 全國의 民謠의 採集을 始作하엿는데 大正三年에 俚謠集 大正四年에 俚謠集拾遺를 刊行하엿고 墺地利에서도 政府에서 이에 着手하야「찌롤」地方에서 一萬五千의 歌謠及舞踊歌를「뻬-멘」地方에서는 一萬二千의 歌謠曲譜를 蒐集하엿다한다。其他 舊獨逸帝國에서는 皇帝「윌리엄」三世의 奬勵補助下에 蒐集이 되엿고 現今獨逸政體로 變한後도 그事業을 繼續한다하며 英國에서도 여러가지 어에 對한 運動이 잇서 鄕土藝術音樂의 紹介와 保存에 努力하고잇다고한다。

民謠는 都會文化가 優勢를 占領할수록 凋落해간다 더욱이 現今가티『라듸오』蓄音器等이 輸入되며 農村에까지 進出함에 이르러 한層더 빨리 在來口傳民謠의 滅亡을 招來하고잇다。時代에 따라 變하는 民族詩의 型態는 한번 일허버리면 다시 차즐길이 茫然하다。

『내일』의 새 建設이『어제』의 自省에서 始作된다면 口傳民謠의 蒐集은 이러한 意味로도 重大하다고 누가말햇다 再三吟味할말이다。

끗흐로 民謠의蒐集에對하야 一言添附하고 擱筆하겟다

흔이 民謠의採集이라면 歌詞만의 蒐集이 그全部인것처럼誤認하는사람이잇다。民謠의 採集은 歌詞는 勿論 그에딸는 律調와 舞踊等의 文獻的記錄이며 民謠의 歌詞에나오는 器物類等으로 特히 早晩間消滅될 可能性이잇는것은 그것을保存或은撮影이라도 해둘必要가잇다。

그리고 筆者의 經驗에빗초아보면 蒐集時에는 먼첨 自己가 採集하려는 道의 地理를잘硏究한다음에 가장文化의 浸潤이적은 郡을擇하야 그郡에가서 長時日間逗留하면서 歌謠를採集한다음에 其道內他郡을 巡廻하야 그 採集된노래外에 遺漏함이업는가를 大略調査하면足하다。그리고 한地方에가면 그地方에서도 歌唱에익숙한 老人을 차저가서 聽取함이조켓고 그때에는 採集한노래를 불러서 或이저버린노래라도 그것으로因해서記憶이나도록 便宜를보아주어야하며 聽寫時에는 부르는노래가 自己의 意思에맛지안타고 그노래에다 添付或은訂正해서는 何等의價値도업서지고마다。(完)

世界的流行病의襲來?

―英國醫學雜誌의發表―

【倫敦發聯合】『將來第二의 世界戰爭이잇다면 全世界에는 놀나운流行病이 猖獗하리라』고하는『셰세이슈벨』이란意見이 英國의醫學雜誌「란셋트」最近號에 發表되엿나 筆者는倫敦의醫學者『웨스톤·허-스트』博士로서 博士는다음과가티 叙述하엿다

『今番戰爭이일면 그것은勿論第二의世界大戰이될것이고 地球의兩端에 住居하는사람들은서로接觸하게될것이다 그結果從來一地方에局限되여잇든 傳染病이 全世界에퍼지어 流行할것이라는것은想像하기어렵지안타 그러나 日本이나『오-스트라리아』나 米國中西部나 歐洲로부터 멀리떠러저잇는 諸國의 眼病은 크게流行하지안흘는지도모르나 그래도 注意할必要는잇다 將來 이러한 種類의傳染病이 우리英國에도 流行하지안흐리라고 누가 斷言하겟느냐

해마다 世界의交通은 漸漸敏速하게되고 便利하게되며 사람들은 널리旅行하면서잇다。現今의 不況이 克服되면 이러한現象은 一層더頻繁해질더이니 이러한 方面으로보아도 流行病의 世界的蔓延의 可能性은 充分한것이다。』

『쏘베-트』에新火山

【모스크바發聯合郵信】最近쏘베-트聯邦「로란스코-카샤」에新火山이爆發되엿다 그地方住民은 이것을「카이놀자」山이라고 命名햇다 火口의直徑은 約三百呎이고 김히는約三百呎로서 爆發以來溶岩과「까스」를 噴出하고잇다 爆發直後『쏘베-트』의 地質學者들은 急速히 調査에赴하얏스나「까스」는 그化學的構成에잇서서 石油「까스」와 極히類似한것이 發見되엿고 더욱「로란스코-카샤」地方은 벌서 豐富한油田의 所在地임으로 學者들은 新火山附近의 地底에는 膨大한 處女油田이 잇지안흘지도 알수업는일이라고한다 다시 新火山의 傾斜面을通해서 흘러내리는 溶岩流에는 多量의酸素가 含有된것이 判明되엿다 그結果火口附近은 漸漸白雲에뭇처가고잇되고잇다。

海外短信

獨逸에서 沙翁劇盛行

【伯林發聯合郵信】이번씨-즌의 獨逸劇界는 아모리해도沙翁劇이 第一好評이다、現在큰 劇場에서 沙翁劇을 上演하고잇는것은 二十一個所나 된다。『헨리四世』『브렛스라우』『함부르그』『케무닛코』等 各地에서 上演되며 其他『로메오와줄리엣트』『햄렛트』『궤로나의二紳士』『十二夜』『마베스』等이 上演되여 來年度『씨-즌』까지는 다시 四十六個의 作品이脚光을 바드리라고 한다

『罪人』과沙翁

【모스크바發聯合郵信】最近『모스크바』로부터 三百哩떠러저잇는『쿠리스크』의 敎會에서『罪人』이라는 題目이붓튼·한장의그림이發見되엿다 그림은例의『크리스트』의審判을 形容한것으로 蒼白한顏色이되여『쉑스피아』가 數人의로시아罪人과 갓치審判을 당하고잇는 特異한것인데 이그림은 近日中에『모스크바』의『反宗敎博物館』에 보내게되여一般에 公開하리라고한다

新刊紹介

▲專賣の朝鮮 十一月號 朝鮮總督府專賣局內 朝鮮專賣協會發行 振替京城一三八六三番定價三十錢

▲高麗時報 第三十一號 開城府北本町三九六 高麗時報社發行 振替京城二四〇九三番 定價五錢

▲調查月報 十月號朝鮮總督府文書課發行 定價三十錢送料二錢 販賣所 京城府蓬萊町三丁目六二朝鮮印刷株式會社發行 振替京城四〇番

▲三千里 十一月號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三千里發行 振替京城一九四九番 定價三十錢 (送料共)

▲京城敎育情報 第一號 京城府臥龍洞一三九 京城敎育情報社發行 振替京城一二六八九番 定價十錢

▲新興佛敎新聞 第百八十四號東京市豐島區雜司ケ谷町一ノ六〇佛敎社發行 振替東京五三七〇一番 定價五錢

▲世界と我等 十一月號 東京市丸ノ內二ノ一二 日本國際協會發行 振替東京五五一八三番 定價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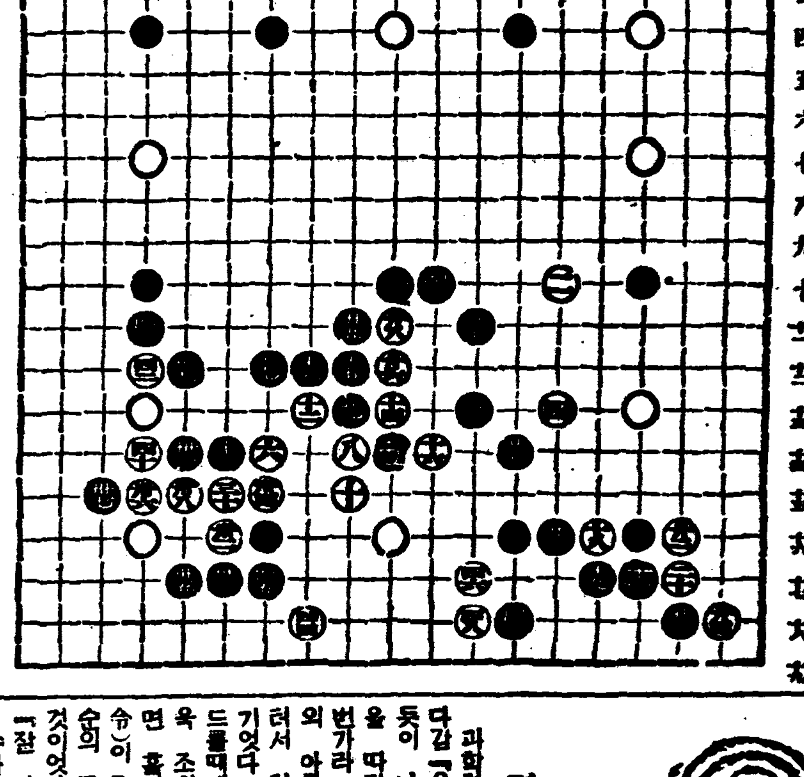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3―

本社主催

白 蔡極文 當局
黑先 金壽杓 秀才

●【[illegible]】卯의七
○【[illegible]】寅의五
●【[illegible]】辰의七
○【[illegible]】巳의五
●【[illegible]】午의五
○【[illegible]】辰의五
●【[illegible]】辰의十三
○【[illegible]】巳의十四
●【[illegible]】壬의十
○【[illegible]】巳의十三
●【[illegible]】巳의十二
○【[illegible]】丑의七
●【[illegible]】寅의七
○【[illegible]】亥의七
●【[illegible]】辰의六
○【[illegible]】亥의六



◆對局者談

黑이 辰의 十七로 緊延치말고 辰의 十六으로 粘着하엿스면 白이 巳의 十五로 列着할 能力이 업슬것이다 黑이 除萬하고 壬의 十으로 延着한은 左右照應의 取勢가 相當하니 時局上第一點으로 推想하노라 白은 迂回曲進으로 巳의 十三를 連續進出함이 損益은 則無하나 奇變는 何由오 保守的으로 看做하노라

黑風 【171】

韓龍雲 作
金熊超 畫

결혼 11

과학적이오 조리잇는 말에잇다감『유모어』를 석거서 흐르듯이 나오는 입과 말의 곡절을 따라서 표정하는 눈과 틀 번가라 보고잇는 왕한은 창순의 아름다움이 새로히 온것가티서 정도이상으로 미감을 늣기엇다 왕한이가 창순의 말을 드를때에 언론보다도 리상이더욱 조치아니한가 하고 생각하면 흉연히 리론보다 사령(辭令)이 조아뵈이다가 결국은 창순의 모든것이 어엽부게 뵈인것이엇다

『잘 드럿습니다 그럿습니다 술수라는것은 허황한것 이어서 실지가 업슬뿐아니라 가사 술수로서 아는 도리가 잇다할지라도 길한것을 취하고 흉한것을 피할수 업는이상 하이라는것은 정치지 안러라도 따단할수가 잇는것이니다 그러한데 우리나라에는 과학지식이 보급되지 못하고 예로오는 습관의 폐해가 만하야서 간호하고 허황한 무리가 여러가지 술수라는것을 빙자하고 우부우부를 속여서 직접간접으로 폐해되는것이 적지아니함으로 크게는 국가의 수치가 되고 민족의 불행이 되는것입니다 그러한것을 망정하여야 되고 지도하여야 될 우리로서 그러한 술수를 밋는대서야 얼마나 큰 모순이겟습니까 나의 이른바 택일이라는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결혼을 하랴면 다소의 준비 관계도잇고 양편의 사정도 잇스니까 그러한것을 참작하야서 적당한시기로 결정하자는것입니다』

등의 소용이 업는것이오 가사 술수로서 사람의 미래의 일을 아라서 흉한것을 피하고 길한것을 취할수가 잇다할지라도『그러한것에만 종사하야서 요행을 바라는것은 사람으로서 정당한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길흉만을 위하야 사는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땅히 정당한 도리를 행할뿐이오 압길에 오는 길흉이라는것은 무를바가 아닙니다 가령 우편길로 가면 흉하고좌편길로 가면 길하다 할지라도 우편으로 가는것이 정당한 길이라면 사람은 맛당히 우편길로 갈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사 고락 흥망 성쇄 그러한 길흉보다 선악에대한 길흉이 더욱 큰 까닭입니다 다시말하면 사람은 사람답은 노릇을 하는것이 가장길하고 사람답지못한 노릇을 하는것이 가장 흉한것입니다 사람에게 흉한일이라면 죽는일보다 더큰흉한일은 업슬것입니다 그러나 올흔사람은 정당한일을 행하기 위하야는 우스면서 죽엄을 밧는것입니다 아모리 부귀 영화를 할지라도 사람답지 못한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천추에 불행한 사람이 되는것이요 어떤것이 길한것이오 어떤것이 흉한것

하는 왕한은 창순의 하는말을 부연하는 동시에 자기의근본뜻을 말하얏다

창순의 책상위에 노여잇는좌종이 열두시를 친다

『결혼택일 이라는것이 어려운것이군요』

하는 왕한의 뜻밧긔 말에

『웨요?』

하면서 왕한을보는 창순의눈에는 새로운 표정이 떠돈다

『자정을치면 새날입니다 두사람이 이룰을 두고 의론하야도 결정을 하지못하니 결혼택일이라는것이 어려운것이아니여요』

『그럴까요』

하는 창순은 왕한의말이 자미잇다는듯이 애교의 우슴을우스면서

『그럼 선생님이 어서 택일하서요 복채는 드릴수가 업고요 복채 대신으로 술이나한잔 드리지오』

하고 간직하야 두엇든 술병과 간단한·안주를 가저다가 왕한의압헤 놋는다 그것은 언제든지 준비하야두고 왕한이가올때마다 대접하는것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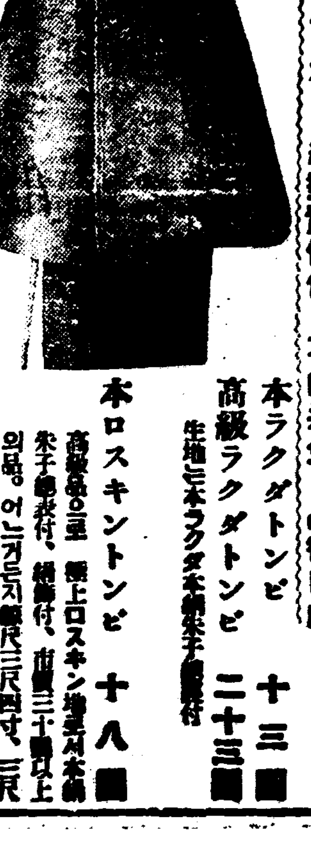
『복채로 보지마시고 택일이나 잘해주서요』

하면서 술을 따라서 왕한에게 권하는 창순은 우슴을 참기위하야 입설을 다믈엇다

◎世界一、毛織物生產都市인、名古屋毛織界大変動、大供給
販賣고-쓰大革命！販賣品을全部自家工場에서 製造하야大衆的으로大廉賣함으로써特約店、仲買人、問屋도無用의厥物이올시다
이런革命的大廉價品을꼭一次利用하시라。

大産＝大販＝市價의＝半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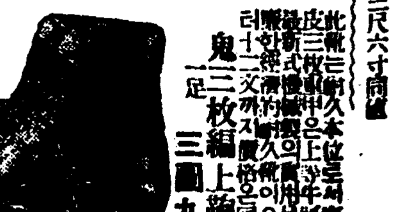
◎小賣市價의半値以下、絶對責任付、不向返金、品替自由



高級トンビ
本ラクダトンビ 十三圓
高級ラクダトンビ 二十三圓
生地는本ラクダ本絹朱子總裏付
本ロスキントンビ 十八圓
高級品으로 極上ロスキン地로서本絹朱子總裏付、縫付、市價三十圓以上의品 어느거든지總尺三尺四寸、三尺五寸、三尺六寸同價

スポーテックス地
青年向背廣洋服
中年向本年流行上等生地色合、紺、黑、茶色이며秋冬春着用品이다
中年向 三ツ揃 五百着限大特價
一着 八圓八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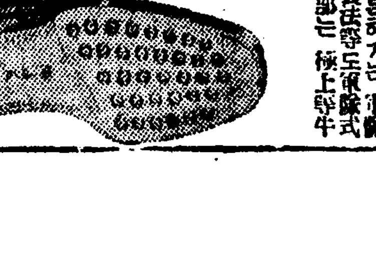
鬼三枚底總靴革
鬼三枚短靴 一足 三圓五十錢



此靴는耐久本位로서底는牛皮三枚重이며上等牛革이며最新式機械製造의最新型이며 [illegible]
鬼三枚編上靴 一足 三圓九十錢

サージ洋服
特殊組織、黑サージ地로서仕立入念丈夫 向一般用
詰エリ特品 八圓五十錢
詰エリ上品 六圓五十錢
三ツ揃特品 十六圓
三ツ揃上品 十一圓

堅牢無比 青年訓練總革靴
一足 三圓五十錢
絕對耐久二個年以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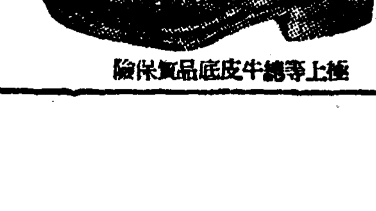


此訓練靴가튼것은 [illegible] 皮底는極厚牛皮에다金釘 數十個를박고 前後에 大鋲을 以上耐久力이잇소

ウーステツト地
紳士向背廣洋服
本年流行의紳士用ウーステツト地最新柄薄色地에杉綾、縞柄格子柄等年齡御指定
上品 三ツ揃一着 十五圓五十錢
●ウーステツト地ニアルパカ總裏付
特品 三ツ揃一着 十八圓五十錢
●特ニウーステツトニ本絹朱子總裏付

ボタン付先細型エナメル付
短型靴四圓五十錢

高級紳士禮服用總革靴
高級職工의手製品이요 原料도最良品임으로 [illegible]
深型靴 五圓五十錢



極上等總牛皮底品質保險

最新ピッケ地
紳士向背廣洋服
特選高級品三ツ揃一着
十六圓五十錢
高級中年向으로小ミジン과アゼ柄의優良品이며裏는アルパカ와絹朱子

流行總革フレンチ型
本品은絶對로機械製이아니고全部手製品이오 上等總皮底
フレンチ型 編上靴 四圓二十錢

フレンチ型 短靴 三圓七十錢

御注文의便利
御注文은 手紙로申込하시오 [illegible]
製造直販元
合資會社 金城商會·販賣部
名古屋市東區千種町 (古井坂電停前)

飢寒에우는細窮民 咸興府內만六千餘

大部分凶作으로밀려온農民 門前乞食으로僅延命

【咸興】닥처오는 추운겨울을앞두고 신탄과 량식의 준비가하나도업서 불안상태에잇는 세궁민(細窮民)이 함흥부에만 시월말현재로 일천륙십이호에 륙천일백이십명의 다수에 달한다고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작년도미증유의 흉작으로부터 살길을차저 도시로왓스나 그역시살길이막연하야 최후의방도로 집집마다밥을 빌어서 연명하고잇는등 다수사람들이라고하는데 과연 금동을 어떠케 지낼는지 눈물겨운현상이라한다

柳京堂醫院美事

【平壤】평양부내 류경당의원(柳京堂醫院)은 작년 시월중에 개업한이래 상당한 어적을 나타내하게되어 제반내용설비를 일신케하고 일방으로 개업일주년의 기념사업으로서 지난 이십오일부터 일개월동안을 일반환자에게 무료진찰을하여주고 약가는실비로 제공한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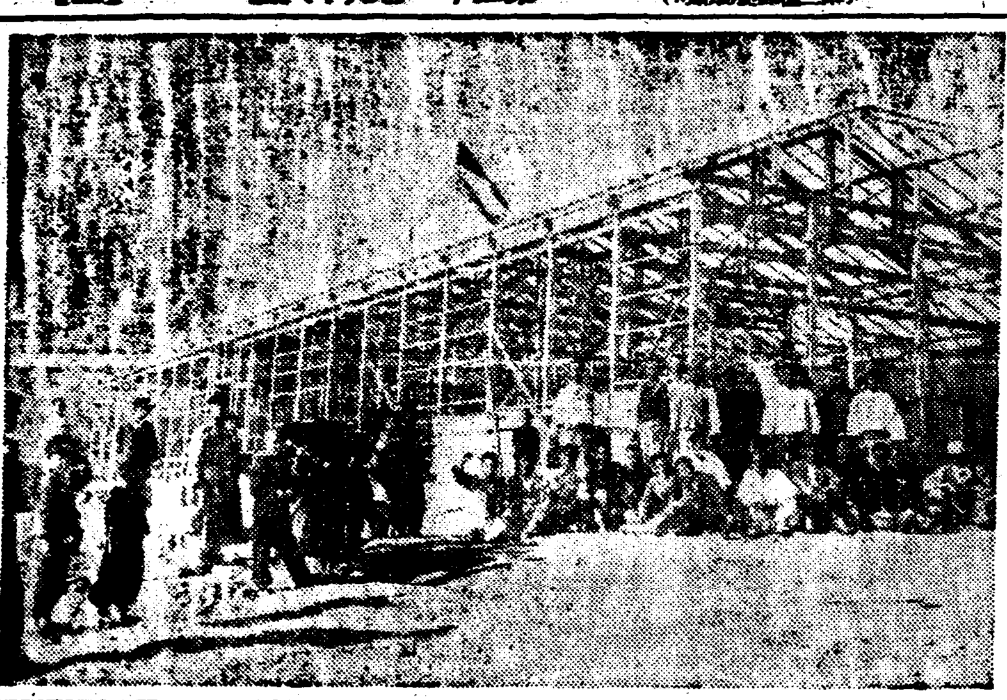
溫陽溫泉場에 新溫泉이湧出 來月上旬開館

【牙山】온천사상(溫泉史上)에 원로를 말하고 미려(美麗)를 자랑하는 반도의명물? 온양온천(溫陽溫泉)은 누구나 즐기는이가 업서서 새삼스레히 경치와 려사를 들추지안커니와 이제천연의 혜수(天然의惠水)가 또다시용출한바 신온천의 장관(新溫泉壯觀)을 소개하면 이삼도의 흘나온 온천으로방금 공동탕(共同湯)을위시하야 오락관(娛樂館)려관(旅館)등의 시설에 착공한바 오는 칠월초순경에는 만반시설이 준공되는족시로 개관할예정이라는바 신온천장은 온양온천역(溫泉驛)에서 북쪽으로 약일킬로로되는곳에 잇스며 신온천발견자는 온천리에 거주하는 금구미삼랑(金口勝三郞)씨라한다

全郡民結束奮起 安岳線實現促進

安岳鐵道期成會猛活動開始 郡民大會開催準備

【安岳】황해도안악의 철도문제는 그간십여년을두고 예정선인 신천제도(信川猪島)선이 되리라고 미덧스나 그동안 예정선에 듬지도안코 해주토성간(海州·土城間)이 벌서준공되엿스며 또 수교(水橋)선이 개통되고 지금 공사중에잇는 마산(馬山)선도등의 공사가 착공하엿슴에 불구하고 안악선만은 아무런기색이 업슴으로 소화칠년륙월에 이르러 안악유지전반이 출마하야 안악철도기성회란 단체를 조직하고 도청과 총독부등 조철회사를 역방하고 간곡한 진정을 햇든바 예정선이니 안될니 업다하야 저욱히 안심하고 물러왓는데 마삽개년이된 금일에 이르기까지 한등 소식이 업슴으로 안악철도기성회 평의원회(評議員會)를 지난오일 오후한시에 안악군청회의실에서 회장김용석(會長金鏞石)씨 사회로 안악군수(趙郡守) 립회하에 삼십여명의원들의 열렬한 주장으로 개회하야 단순히 회의진행이 철도기성그것뿐인고로 먼저 예정선을 끈치기로하야 신천 안악 제도선보다는 재령안악(載寧安岳)간 개통을 희망하자는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엿다 이리유는 황해도정책상 타도측평야 진남포로 수출하는것보다 철도를 재령으로노아가지고 미력(未力)으로 축통하야 해주를 들러 통해포로 내는것이 황해도 수입상 유리하다는것이 한리유가 되어기때문에 계획을변넘는 안악군민(安岳郡民)전체가 경케되엇고 진정방법에 대하야는 상민계일류만터드든것이어지 국부적이아닐가하야 농상공(農商工)상하계급을 물론하고 이만이모하여서 압프로 군민대회를개최하야 대대적으로 운동을 개시할터이라는바 저반 조철당국과 총독부에 처사가 안악군민 전반을 등한시 혹은 무시나하지안엇는가하야 일반의 감정을 끌게 되는동시에 압프로 열릴 군민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잇다한다



◇…寫眞은新築工事中인海州[illegible] 校舍

黃海道第二回米作豫想高 百六十六萬餘石

比前年實收高一割增

【海州】황해도내의 금년미작(米作) 제이회수확예상을 도농무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실로 일백륙십륙만오천오백륙십석으로서 작년실수확고에 비하야 일할칠푼의 대증수로 반당(反當)일석일두오승오합에 달하야 근년에 보지못하든 풍작을보이고잇다 즉 수도(水稻)에 잇서서는 일백륙십이만 칠천칠백칠십일석으로 작년도 실수확고에 비하야 일할구리의증수로 반당(反當)일석일두사승팔합에 달하고 륙도(陸稻)에 잇서서는 삼만칠천칠백구석으로서 작년실수확고에 비하야 륙분칠리의 증수로 예상되고잇다는데 그것을 군별로보면다음과 갓다

郡別	豫想收穫石數
海州	二六七、七〇八石
延白	三九四、八四一
金川	二七、六二九
平山	六二、七五五
新溪	一一、四五六
甕津	一〇一、四六八
長淵	三九、七七〇
松禾	五二、〇三一
殷栗	三九、九四二
安岳	一三三、四四五
載寧	一五六、八四〇
黃州	七〇、五一一
鳳山	七九、七四六
瑞興	一〇、五五一
遂安	九、六六〇
谷山	一四、四一〇
計	一、六六五、五六三

大邱驛附近에서 青春男女情死

【大邱】대구부외 달서면(達西面)상리 경부본선 부산기점(釜山起點)일백사십키로 에서 지난 칠일 새벽 다섯시 오십분경에 십이서 되어보이는 어엿분처녀이 비자인데 신원을 아직알지 못하엿슴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직알수업스나 변자는 대구역에서 오전다섯시반에 발차하는 열차에 려차하야 분쇄되엿스며 남자는 좌편전체를 선로에 떠러지고 잇는것을 발견하고 도립병원에 입원시켜 방금응급치료중이라한다

大規模의金密輸 一團十七名送局

平壤、安東縣을連絡廿餘回에 密輸總額이十五萬圓

【新義州】지난삼월부내 로송정(老松町)○○려관에서 발생한금괴(金塊)도난사건으로의외에단서를잡은 신의주경찰서에서는암암리에 활동을 개시하여 동이십륙일 오후여덜시 삼십삼분 신의주역착 북행렬차에서 평양으로 부터 금괴밀수출을 하려는 혐의자 두명을 검거하자 동서형사대는 곳동야십시오십팔분신의주역발 남행렬차로 평양에급행하여 대금괴 밀수단 검거에 착수하든바 수일간에 일단십칠명을 검거하여 그간 동서에서는 극비에부하고 엄중취조중이든바 지난 팔일사건의 일단락을 지어 신의주검사국으로 남녀십칠명을 송치하엿는데 사건의내용과 송국된자 씨명은 다음과갓다 전기일단은 자금을 각자지출하여 금년정월이일부터 이십여회에 이르러 금괴십여관 약십오만원가량을 흘흔 보산좌갓준데 갖추어안동현등지에밀수출한것이라한다

送局者氏名

▲平壤府倉田里一四 崔昌善의妻 金貴珍(三二)
▲同府慶上里二六 洪樂憲의妻 金可女(三七)
▲同府鏡齋里二六 金成俊의妻 金允婧(三三)
▲同藤里二八 商業 金世俊(三六)
▲同府倉田里二一 理髮業 金成龍(三〇)
▲同 一四 金銀細工 崔昌善(三三)
▲同府水口里一三四 綿布商 李東星(三三)
▲同慶上里一一六 周旋業 洪樂憲(三五)
▲寧邊郡古城面南山洞六二九 金地金商 金永泰(六五)
▲同府箕林里 洪瑞贊의妻 康寶武(三九)
▲同府藤岩里一五五 金炳武의妻 宋昌玉(三六)
前科一犯
▲同府倉田里 無職 洪利格(四〇)
▲寧邊郡寧邊面西龍洞 無職 崔相益(三七)
▲平壤府慶昌里一一六 洪樂憲의母 李 氏(六〇)
▲平壤府藤岩里二八 宋昌善(三〇)
▲同上 水口里八三 無職 車祥用(四九)
▲順川郡內南面新里 金善杜(三五)
▲寧邊郡古城面南山洞六二九 金永泰의妻 李氏(五三)

以下未逮捕

▲黃海道遂安郡 金萬榮(三二)
▲平南成川郡 金地金商 李善斗(三八)
▲寧邊郡新幌面上長里 金地金商 吳成寶(三四)
▲成川郡通仙面金地面 金地金商 金李永植(三〇)
▲同郡南松面石倉里 金地金商 崔炳烈(三五)
▲同 同砂川里 無職 洪在允(三六)
▲同、同 同三二九 綿布商 洪承泰(三二)
▲平壤府倉田里 無職 金寶永(四〇)

工費三十餘萬圓으로 大川漁港遂竣工

十五日에竣工式擧行

【大川】충남 대천어항(忠南大川漁港)은 소화칠년십일월에 본도 지방비 삼십일만오천원으로 기공한바 삼개년계속공사로 금번에 준공을보게되엇스므로 오는 십오일 공사현장에서 준공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한다 충남 서해안에서 산출되는 년산액 이백만원이라는 물자가 전부 군산(群山) 인천(仁川)등지로 집합되여 본도재원상 막대한 손실이던바 이것을 목표로 동어항에 백만원의 수산회사가 창립되리라하며 동시에 어항발전과 아울러 시설이 완비될것이며 따라서 해륙을 통하여 전긔 거대한 뻬자가 자유로 흡수되여 장래로는 중부조선탑로 항을 전제할것이라고 일반은 긔대가크다고 한다

漆谷郡管內에 免稅額二千圓

【倭館】경북칠곡군은 년부년한재로 인하야 농민은 크게곤난한상태인데 왜관세무서 관내인 칠곡군내에만 면세면적이 사백사십여정보에 총면세액이 삼천사백륙십여원이라한다

蘋果廢物을利用 榮養分만흔果酒

四十餘年果園栽培에從事한 元山尹秉秀翁의成功

【元山】지금으로부터 사십년전 조선이라면 아직도 미개하고 몽매하야 과수재배를 규모잇게 하라고 계획한사람도업섯스리라—이러한 당시에 원산의 윤병수(尹秉秀)(六一)씨는 과수재배를 목적하고 멀니미국에서 과묘(果苗)수천주를 주문해다가 과원을 경영하야 금일에 일으기까지 사십년간 꾸준한노력을 이과수의 재배및가공에기우려온것이다 그후 윤옹은 원산부두산리(元山府斗山里)에다 한농원(韓農園)을 건설하고 다시금 과실의 가공품 연구를 하얏다 더욱이 부정과실의 폐물리용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고심연구를 거듭하든 동안에 때로는 연구가의본령인 칠성까지 이즈럼이잇섯고 또한가재까지탕진하얏든 터이다 그 그뿐인가? 한때는 이윤옹의 연구를 시긔하는 자들 밀고로 뜻하지안는 가택수색을 당하고 또주세위반에 까지 얽혀들게될 번한일까지 잇섯다고한다 이러케 허다한 파란곡절을 바드면서도 오히려 굴치안는 탐진구긔의 융긔로 일로매진한 결과 윤옹의 과주(果酒)란어떤것이가 옹은 십여성상을두고 과실의가공법을 전공 하얏스니 즉『한든』『푸리링』『뽀스돈』『써린놀』(汁) 가정빠티 건조(乾燥)조 (에)사이다 술등을 제조하야 일반에게 시험하야보앗스나 아즉 동양인의습관과정도관계로는 긔효를엇지못할것을알고 시긔가올것을 기다리다가 과수의생산과잉으로 생산자의타격이 만흔금일 이과잉생산을 처리하고 나아가서는 민족보건의 견지에서 재래의주정(酒精)이 만이 잇는 술 대신으로 영양가치가 만흔 과주를 세상에내여 노흐면 홀로 이것이윤옹의 깃붐이안이고 조선의깃붐일것을 밋고 뻘—주 구쓰뻴—주、향주(香酒) 능금술 (林檎酒)를 제일착으로 제조판매코저 지난봄에 당국의 인가를 어더가지고 방금 제조중이라고한다 그리하야 명년오、륙월경에는 실물로서 세상에 내보내리라고한다、

이과주는 과실과사탕을 조합해서 양조한것으로 확계될이면 율료에 공급하게되나 천연요소를 조화함에는 십개월내지 일년반이 걸린다고한다 이과주의 특증은 주정이적고 그대신 다른 영양가치가 만이 잇서서 금후로 애용자가 쭘을 하리라고한다

이러케 윤병수옹은 칠십이넘은 노령(老齡)에든이로서 이과주의 완성을 위하야 분투하며 연구를 거듭하고잇서서 문등하엽 반향구사민청년들에게 주는시사(示唆)가크다고한다

慘劇發生直後엔 三十勞働者休業

原因은一個의不發彈爆發로 『세멘트』工場慘事後聞

【咸興】기보 문천군천내리 소야전『세멘트』(小野田『세멘트』)공장 채석장(採石場)폭발사고의 원인과 경과에대하여 함남도경찰부에서 조사발표한바에의하면 동채석장에서 매일오후세시경에 로동자가『다이나마이트』로 파암작업하는데 사고를 이르킨 로동자들은 발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잇든데 지난 오일오후 (사고발생전일)에도역시 십수발의『다이나마이트』에 점화하여 폭발시히엿는대 그중에 우연히 미폭발된『다이나마이트』가 일개가잇섯다 그리하여 미폭발된 『다이나마이트』는 종래의 례대로 그익일 아츰에 전긔작용 (電氣作用)으로 폭발식히기로 되여 칠일 오전 일곱시반경 폭발케주엇이 그불발『다이나마이트』가잇는 개소를 검사하려고가서 손으로 약간 만저보앗는바 돌연 굉장한 음향과함께 폭발되여 동인은 부상만하고 부근에잇든 로동자사명은 뛰여오르는 암석에 마저 즉사하고 십명은 중상을당하엿다 그리하야 이 참사가나자 동시흥분된 친구들 삼십여명은 일시 휴업하고 사무소와 사무원에게 폭행하리하여 소동을 열시경에 겨우 진압이되엇스나 동일오후세시부터 교체(交替)하여 출근작업할 로동자 삼십여명은 한사람도 출근치안코 분투이 작업을 중지하게되엿다 금후 사태가 여하히 진전될지 파히주목되는터이라한다

四千圓處分問題로 妓生과抱主對立紛糾

抱主側分配를主張하고잇스나 妓生側은寄附를主張

【海州】해주기생들의 공동소유인 해주기생권번(海州妓生券番)의 주권(株券)삼백이십주(현금으로환산하면약사천원) 처분문제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기생의 일파와 그들의 부형파 및 포주등의일파가 서로 대립되여 분규를 이르키고 잇다 종내에잇서서는 기생들이 스사로 예기조합(藝妓組合)이란 자치긔관을 결성하고 그긔관으로 하야금 통제를 취해오든바 금번 기생권번(妓生券番)이 결성됨을따라 전긔예기조합이 필연적으로 해소과정을 밟게되자 기생들측에서는 자긔권리의 옹호 수단으로써 조합의 건물(建物)기타의 비품을 시청원에 평가하야 동권번의 주권삼백이십주를 차지하엿섯든데 실제적으로 전긔 주권이 그들자생의권리옹호에 아모힘이업슴을 깨닷게되자 전긔주권의 처분문제를 두고보게되엿다

이처분문제가 대두되자 기생의 부형과 포주들의 일파는 구조합의 재산인 문제의주권은 기생이 조합에 가맹할당시 가맹금으로 십원내지 이십원식거출한것이 축적된것이며 그가맹금을내는사람은 비록 기생의명의일지나 실제에잇서서는 부형과밋 포주가 거출한것임으로 그주권이 자긔들에게 잇다고 주장하는동시에 그처분방법에 잇서서 매각하야 분배하기를 주장하고잇스며 진보적인 기생의일파에서는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인 자긔들에게 처분권이잇다고 주장하는동시에 그처분방법에 잇서서는 과거의 조합원이든 연고자의 대부분이 각지로 분산되여 그행방을 조사하야 분배키가 곤난하다는것과 그보다는 한데뭉처서 사회적으로 유용하게쓰는편이 조타는것 등을 드러서 사회사업에 긔부키를 주장하고잇서 양파의 태도는 자못강경하야 타협적해결을 보기에는 어려운 형편인바 일반은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잇다

木村保安主任 談

주권(株券)처분문제를 중심으로한 분규사건에 대하야는 별항과 과연 그주권의 처분권이 누구에게 잇스며 또한 그주권은 엇더케 처분하는것이 정당한 태도인가 하는것은 일반의 관심거리가 되여잇는바 이에 관하야 권번의 직접주체의 임에 당하야잇는 해주서(海州署)보안주임 (木村保安主任)은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문제의 주권(株券)처분문제를 중심으로 기생들의 일파와포주(抱主)의 일파가 서로 갈등되여 분규를 이르키고 잇는것은 벌서부터 알고잇섯습니다 그러나 분규가 더이상확대되지안는 한편에 잇서서 경찰로서 조정의 손을대일필요가 업서서 지금까지 정관주의를 취하야 사건의추이를 주목하고잇섯습니다

여하간 포주측에서 그주(株)의 처분권이 자긔들에게 잇다는것은 무리한 주장이며 따라서 매각하야 각각분배한다는것은 불가능한것으로서 나는긔생측에 그처분권이 잇다는것으로봄이요 또 용도에잇서서도 기생들의주장과 가티 교육긔관가튼데 기부하는것이 올치안흘가생각합니다』

海州修養講習所 學校昇格實現

基本金募集定額超過 —校舍新築着工—

【海州】해주에잇서서 오직하나의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서 십유여년의 빗나는 력사를가진 해주수양강습소(海州修養講習所)에서는 최근약진을 거듭하고잇는 해주사회의 사회적정세에 감하야 사립학교로승격코저 저간 최학구(崔學九)등제씨의후원을어더 사립광명학교기성회(私立光明學校期成會)를 조직하고 긔부금모집에 매진중이엇든데 지난오일까지에 예정액을 초과하야 긔부금모집을 맛치여 그순조로운 진행을 보게되엿다 더욱이 동교에서는 시내 북행정(北幸町)에 소재한 대지(垈地)일천평을 교사(校舍) 부지로 일천오백원에 매수하야 금번오월 초순부터 건축비(建築費)사천원예산으로 목조양관(木造洋館)일백십오평의 건물(建物)을 신축중이엇는데 그락성(落成)을보게되여 동교로서는 물론 교육해주로서 두가지의 경사를 맛게되엿다한다

普校增築爲해 朝鮮映畫大會

【興南】금춘이래 당지공립보통학교 증축을위하야 해교후원회 역원들이 노력하고잇다함은 루보한바이어니와 오는십륙、칠양일동안 해교후원회주최와 본보 지국후원하에 우수한 조선영화를 당지극장에서 상영하야 회원도 되게하고 ...

江西農場移住民 六十餘戶가離散

配分過多와旱災로廢農되여 殘留四十戶生途暗澹

【江西】작년에 상남농수를 만나 전답과 가산을 루실당하고 삶길을 차저 평남강서군 신정면(江西郡新井面)에 잇는 동척강서농장(江西農場)으로 차저왓스나 모든 조건이 처음약속과는 판판다른데다가 금번 농사는 사지의 영문과 떼들의 혹심한 한재로 말미아마 말못되여 희망의가을은 다처왓스나 별로 거두어들일것이업스므로 아무리생각다못하야 죽자는 비장한결심미래서 남부녀대하고 수천리 먼길을 도보로떠나간농가호수가 륙십여호이상에달한다는데 남어지 사십여호 이주민도 금번겨울을지나갈 길이막연하다고한다

轉賣만되든妙齡女 鹽水먹고自殺

【谷山】순진한 농촌처녀 부모의 명령이라면 수화라도 사양치 안는지라 무저한 부모들은 ... 이 잇스니 그는 ... 리화실(李華實)과 ... 을(乙)외 ... 으로 상연전에 그외부모는 백원이란 돈을받고 ... 로 시집을 보내엿든바 부부사이에 금슬이 조치못하야 무조건으로 리혼을 당하고 지난봄에 친정에 와잇던바 그의 부모는 다시 ... 강문성(姜文成)에게 오십원을받고 재가를시켯는데 처음은 다소 따뜻한 사랑이잇섯스나 계속되지못하고 친정에가서 돈을가저오라는등 여러가지로 괴롭게 굴므로 그는 세상을 비관하고 지난오일 김혼밤에 염수를 마시고 그만자살하엿다고한다

甕津線延長으로 土地『부로커』跋扈

【甕津】조철황해선의연장은 다

工費四千圓으로 護岸工事着手

【安州】안주읍외리인 신천강(新川江)변일대는 매년 수해를 막대히 입든바 지난 사월부터 도에서 사천여원의 보조와 일천여원기부금 합오천여원의 공사비로 호안공사를 시작하엿다하며 ... 하리라고한다

平壤에서는最初인 懸賞園藝大會

參加申請이連日殺到

【平壤】평양 ... 주최와 본사평양지국후원으로 오는 ... 개최되는 제일회 현상원예대회(第一回懸賞園藝大會)는 ... 참가신청이 련일 쇄도하는 ... 고한다

駕洛의古都金海의 古蹟保存事業에

金性學氏五千圓喜捨

【金海】경남 김해읍은 지금부터 일천팔백구십사년전에 가락국도(駕洛國都)임으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적을 말하면 가락국 김수로왕릉소(駕洛國金首露王陵所)와 동허후릉소(許后陵所)를 비롯하야 이십여명소가잇스나 김해고적보존회(金海古蹟保存會)에서는 여러가지 비용관계로 사업을마음대로 하지못하든바 현재 숭선전참봉(崇善殿參奉)으로 잇는 김성학(金性學)씨가 특히 김해고적보존에 대한모든 사업에 대한것을 일체자진부담하기로되여 위선 일차로 동사업비로 금오천원을 희사하엿다는바 씨의구든 열성아래에 숨어잇든고적을 발휘하리라한다

地方人事

▲[illegible]

▲[illegible]

永興

第九回咸鏡蹴球大會

▲時日 十一月十六、七兩日間
▲場所 永興市民運動場
◇主催 永興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永興支局

新浦

오케ー大演奏會

▲時日 十一月十、十一兩日間
▲場所 新浦 新浦劇場
◇主催 [illegible]支店
◇後援 朝鮮日報社新浦支局

癩

[illegible]

異次頓의死 【37】

李光洙 作 金奎澤 畫

그 고구려청년은 이차돈이 백혜한것을 보고 눈이 둥그레지며、

『너도 활을 메고 칼을 찻스니 자중을 아는냐』

하고 빈정대엇다。

이차돈은 이날의 유쾌한 긔분의 영향도 바다서 호긔잇게

『오 너희 고구려 첫비린내 나는 아이들과는 겨룰 생각도 업다。저것들이 활을 쏘는것이냐』

하고 뽐내엇다。

『건방진놈 가트니』

하고 그 고구려청년은 주먹을 쥔다。

『어듸 주먹으로 한번 겨루어 볼까』

하고 이차돈도 주먹을 쥐인다。

『서방님、서방님』

하고 거울보고가 큰 일 날까 하고 이차돈의 소매를 끌엇다。

섯난 고구려청년은 거울보고를 힐끗 돌아보며、

『오 너도 신라놈이로구나。신랏놈들은 긔운은 한텁도 업스면서 패만 만하。도모지 밋업지 를만고。요리 부텃다 조리 부텃다 간사만 하고—신라놈들이 우리 고구려에 와서 하는 것이 무엇이야。나븐 물건 갓다가 속여 팔아먹기、엿탐스군 질 하기、요놈들을 깡그리 때려서 내어쫏차버려야—』

하고 한번 때에 다른 청년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모여든다。

거울보고는 이거 큰 일낫고나 하고 땅에 손을 집고

『이 몸은 나기는 신라에서낫으나 평양에 온지가 이십년이오 고구려 녀자에게 장가를들고、명주장사를 하는 놈이오、이 서방님은 신라에서구경오신』

하고 빌기를 하는것을 이차돈이 한 발로 떠밀어지치며、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잇서? 이 닥쳐!』

하고는、

『오냐。신랏 사람의 칼 맛이 어떤가 보아라』

하고 이차돈도 칼을 빼엇다。

조흔 구경 낫다 하고 고구려 청년들은 두사람의 주위로 모혀들엇다。

이차돈은 칼을 들고 나서며

『내 처음 이 나라에 와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니 네 귀 한편 하나만을 베고말테다。네 왼편귀가 떨어지거든 더 덤비지는 말렷다。피를 본 칼은 사정이 업는것이어든』

하엿다。

이차돈의 말에 둘러선 사람들은 더욱 긴장하엿다。엽집 스무엽으로 사람들이 신라놈과 고구려놈이 싸호는것을 보랴고 모여들엇다。더들 발을 벗되디고 고개를 치어들엇다。거울보고는 딸아설 긔운도 업서 이차돈의 활을 들고 서서 벌벌 떨고잇섯다。

이차돈은 고구려에 온후로 고구렷 사람들이 신라를 멸시하는 양만 당하고 잇섯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용긔와 재조를 보여 고구렷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케하는것도 쾌한 일이라고 생각하엿다。

고구렷 청년이 먼저 칼을 이차돈의 가슴으로 향하고 엄습하엿다。그러나 이차돈은 슬적 몸을 비켜 고구려청년의 칼끗을 따라서 한 걸음 헛발을 짓게하엿다。

世界小麥需給觀
南半球方面은不作

在倫敦小麥取引所에서는 約一個月前으로부터 明年度小麥의 取引이 되엇는데 今年度小麥市勢에 比하면 騰貴한 價格을 示하엿다 이것은 今年度의 世界小麥供給의 逼迫을 말하는것이 아닌가 한다

× 米國農務省에서 發表한바에 依하면 今年度(一九三五年度)로부터 一九三六年度의 世界小麥供給高는 昨年度보다 約三億三千萬불쉘이 적다 (以下單位百萬불쉘)

	今年度	昨年度
舊穀에서持越	[illegible]	[illegible]
生產高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이供給減은 生產高의 減少로 因한것이다 世界의 生產高는 昨年度까지 三十八億불쉘以上에 達한바 이것은 再昨年度와 昨年度에 三十七億불쉘이든것이 今年度는 三十四億불쉘로 떨어젓다 그結果 今年度末의 世界在荷는 一億 줄어서 四億乃至 五億불쉘로 될것이라고 米國農務省에서는 觀測한다

× 右統計中에는 露西亞의것은 包含이 안되엇바 露西亞의 生產高는 昨年度보다 約一億불쉘의 增收로 觀測되며 그增收는 主로 黑海의 輸出地方으로 그輸出高는 五千萬불쉘에 達할는지 모른다 今年度의 世界生產의 減少는 主로 南半球와 北部의 減收로 因한것으로 亞爾然丁과 濠洲의 生產은 合計約一億四千萬의 減收가 豫想된다 特히 亞爾然丁은 旱魃로 不作이되야 民間豫想에 依하면 昨年의 實收二億三千八百萬불쉘에 對하야 今年은 一億三千萬乃至一億八千五百萬불쉘 程度에 不過한 것으로 觀測된다

× 南半球의 減收에 對하야 北半球는 豐作이어 一億一千萬불쉘以上의 增收가 豫想된다 이것은 主로 米國의 增加로因한것이나 米國으로서는 再昨年에 旱魃로因하야 減收되엇든것이 今年度에 恢復되엿슬뿐으로 今年度의 生產高보다 三千萬불쉘이 적다 昨年度에서 持越된것이 잇슴으로 供給高는 七億四千七百萬으로 되고 國內의 平均消費高 六億二千五百萬을 合한數에 거의同額으로 되엇다 그러나 今年度의 硬質春小麥은 大部分 그需要에 不足이 하고 또 小麥이 적음으로 外國小麥을 相當히 輸入케될것이다 米國農務省의 推算에 依하면 約三千五百萬불쉘의 製粉用小麥의 輸入이 必要하다

× 이와가티 依然 不足한것은 一九〇四年을 除하면 一八九六年以來의 일이며 그럼으로來年度中 外國小麥의 輸入高는 國內의 小麥市勢가 높고 今年度 持越輸入高 輸出餘力은 그러고 今年度의 主要小麥輸出國 持越乃至 輸出餘力은 二億二千五百萬불쉘로 推算되어 그中三億九千萬은 加奈陀가 占하엿다 따라서 加奈陀는 事實上 世界市場을 左右할수잇는地位에잇는바 加奈陀의 今年度供給高는 持越二億一千四百萬、生產高二億九千百萬(合計五億五百萬불쉘)(國內需要는約一億一千萬)으로 昨年度보다 二千萬불쉘이 만흔數字이다

大工業의勃興으로 男女職工不足時代
各工場間에熟練工爭奪戰
簡易教育徹底切望

大資本의 朝鮮進出에 依하야 朝鮮 處處에 工業이 勃興됨에따라 熟練工爭奪이 잇는 狀況이라한다 商工課에서는 이傾向에 職工、女工의 不足時代에 入한모양이라한다 朝鮮의 勞働力供給問題를 來產業課長會議에 提示하야 對策을 進한다는데 實際 民間에서 要은 依然 餘裕綽綽하나 一般으로 無學者가 만허 近代工業에 適하는것은 所謂 職業敎育等의 産業勞働者로서의 資格에 乏하고 高調한것보다도 講習 其他의 簡易敎育徹底、普及을 切望코잇다 就中 纖維工業의 女工은 特히 이關係가 만허 一部에는 工場 한다

產組의協同 統制가必要
우선慶南產組聯認可

產組振興에 就하야서는 殖產局에서 銳意對策을 研究하고 矢原產組係主任은 日本內地에 出張하야 調查研究中인데 朝鮮內產組不振의 原因의 一로서 孤立的 單一經營인點이 問題가되다。即

朝鮮의 產組는 慶南을除하고 其他는 各地에 散在하야 各產組는 孤立的 單一經營임으로 組合은 小單位의 販賣事業을 하기爲하야 人件費를增嵩하고 效果가 업스며 또 有機的 聯絡이 업서 徹底的 合理的協同事業을 할수업는事情이라한다

殖產局에서는 이實狀判明에 依하야 目下申請提出中의 慶南產組聯合會를 認可하는同時에 孤立的 單一經營의 各道散在의產業組合의 協同統制에 對하야 對策을 進코잇다한다

土地와肥料 低資融通受入

昭和十年度產米增殖、土地改良低利資金 百三十二萬三千七百圓及 本年度부터 實施한 短期肥料低資二百萬圓은 去七日 預金部運用委員會議에서 融資決定되엇슴으로 總督府에서 受入準備中인바 土地資金은

東拓 二五二、一五〇圓
殖銀 一〇七、一五五

의比로 十一月二十五日 各各融通키로되고 短期肥料資金은 殖銀이 受入키로되여

東拓 七〇〇、〇〇〇圓
殖銀 七〇〇、〇〇〇
金組 六〇〇、〇〇〇

의比로 十一月二十八日에 各各受入키로 正式으로 決定하얏다

二十八日 借入內定 하얏슴으로 借入組債를 協議키爲하야 本田理事가 十一、二日頃 渡東하야 預金部와 折衝을 開始키로 되엇는데 預金部引受라고는하나 第一回金組券의 起債인만큼 相當히 愼重하게 取扱케되엿다。

米棉收穫豫想 千百十四萬俵

【經濟商通電報】米國農務省은 十一月一日現在의 新棉收穫豫想을 一千百十四萬一千俵로 發表하는同時에 國勢調査局은 本年七回新棉繰綿高를 七百七十五萬俵로 發表하얏다 過去五個年間의 實收高는 如左하다 (單位千俵)

一九三〇—三一年 一三、九三二
一九三一—三二年 一六、八七七
一九三二—三三年 一三、〇〇二
一九三三—三四年 一三、〇四七
一九三四—三五年 九、六三六

金組債券發行決定

朝鮮金融組合聯合會에서는 今年末에 昭和十年度自作農創定、高利債償還低利資金三百二十八萬圓을 金融部引受下에 第一回金組債券으로서 起債키로 決定하얏슴과 아울러 肥料低利資金六十萬圓을 來

殖產助成團 助成金決定

殖產助成財團에서는 本年度의 第

鮮內農產助成金醵出을 如左히決定하얏다

一、米作多收穫 二、六六〇圓
一、水利組合、農會에支給
一、棉作多收穫 一、八〇〇圓
一、各道農會에支出
一、農村振興表彰 二、四〇〇圓
各道에對하야 表彰金을配分

右外에 木工獎勵 一千圓도 決定하얏다

商議役員選擧에 商工兩派軋轢

十一日役員選擧를 압두고 京城商議의 新議員間에는 副會頭問題를 싸고도는 暗鬪가 露骨化하야 여러가지 자미업는 소리가 들린다。即 戶島氏의 商業派와 田川氏의 工業派의 對立이 그것이니 戶島氏와 田川氏가 副會頭자리를 다루어 想像以上의 抗爭이 甚하야 이로因한 두가지 派生된 問題가 잇스니 그一은 伊藤理事가 工業派를 支持한다하야 商業派에서 伊藤理事를 排斥하자는말이 잇다는것이오 그一은 副會頭二名中 一名은 朝鮮人이 慣例이나 二名을 모다 日本內地人으로 選擧하야 朝鮮人副會頭를 업새고 商工兩派에서 各一名式 選擧하자는 奇怪한말이 잇는것이다。

무슨까닭으로 商工兩派가 對立하야 副會頭의 椅子를 奪하는지 그眞意는 알기어렵거니와 商工兩派의 軋轢은 이번에 생긴問題가 아니오 오래前부터 내려오는 宿題로서 이번에 一層尖銳化하얏슬뿐이다。

그들이 商工會議所副會頭로서 商業界나 工業界를爲하야 一層努力하고 貢獻하고저함에서 出發한 싸홈인지 또는 私的關係나 虛榮的心理에서 나온것인지는 밝힐것도업거니와 누가 副會頭가되기로서니 그것이 그리큰일이라고 常識으로判斷치못할程度의 醜聞까지 퍼들리는지 알수업는일이다。싸홈하다하다못해 나종에는 朝鮮人副會頭廢止說까지 나오니 이런沒常識한친구들이 京城商議所議員이라서야 딱한노릇이 아니냐 朝鮮人副會頭가 京城朝鮮人商工界를 爲하야 얼마나 努力해왓스며 貢獻이 잇섯느냐는것은 別問題로 치고라도 名色으로 한자리 주든것까지 때어서버려서야 되겟느냐? 이번에도 副會頭로指目바든 和平堂代表 李東善(京城商工協會副會長)氏가 議員選擧에 落選되지 안엇드면 적어도 朝鮮人副會頭廢止說따위는 나오지 안헛슬것이다 이번에 副會頭로 될듯한 朴永根氏가 古參關係로 果然副會頭가될지 또다른 二級議員中에서 나오게될는지 모르나 누가되던지間에 한가지 付託할것은 그地位를 有効히하야 달라는 것이다。

過去의 慣例에잇서 大部分의 사람은 議員으로서의 權利까지 正當히主張치못한이가 잇섯고 그러치안흐면 會合席上 말한마듸못하고 안젓다가 나오이도 잇섯스니 成果는何如間 京城朝鮮人商工業界를爲하야 眞實한態度로 主張할것은主張하고 要求할것은要求하야 朝鮮人商工業界의 代表로서 選出된 단五名의議員으로서의 代表로서의 重任을 다하기를바란다 朝鮮한 商工兩派의 對立은 어떠케解決될것이며 朝鮮人은 누가 副會頭가될것이고 누가 商議員에 參與케될것이냐 十一日의總會를 기대리자。(一記者)

米穀取引所廢止 賠償안키로決定
自治管理案이通過된後에 取引所制度를改正

【東京電話聯合】米穀對策調査會에서는 米穀自治管理法案外 二法案審議의際에 米穀自治法案實行에依한 米穀取引所의 處置에對하야 愼重히하야달라는旨를 希望하얏는바 其後 米穀取引所側에서도 自治管理案이 實施케되면 當然히 그機能을 顯著히 縮少케되는結果 廢止의運命에 逢着할것을 察知하고 그때의賠償에對하야 農林當局에 善處를 進言하얏는데 農林省은 米穀局關係省의 商工省 取引所理事와 愼重硏究한結果 米穀取引所廢止에 伴한 賠償은 絶對로 認치 안키로 方針을 決定하얏다。그러나 農林當局은 來議會에서 自治管理法이 通過되면 賠償의대신으로 何等의 制度改正을 行하야 取引所側의 要望에 副토록 目下 具體的方法에 對하야 協議를 進코잇다한다

自治管理案과 正租檢查對策
穀聯常任幹事會

朝鮮穀物協會聯合會는 十五六日頃 咸興에서 常任幹事會를 開할터인데 議題는

一、正租檢查實施後의 成績의件
一、米穀自治管理案에對한 對策의件
一、米穀會館建設의件

正租檢查의實績에對하야서는 各協會에서 調査한것을 가지고 오겟고 自治管理案에對하야는 東京에서도 議論이 잇는 場合에鑑하야 對策을講究케되리라한다

北平大衆大恐慌
紙幣不安、補助貨急騰
一般物價三割暴騰

【北平八日發電通】紙幣에 對한 一般不安은 多數人民이 日常生活에 가장 만히 使用되는 補助貨의 値上으로되고 俳三日에 更히急騰되엇다。一元에 對하야 從來五百四十枚餘의 돈쓰루市勢는 今日四百八十枚로되엇스며 이와同時에 食料品을비롯하야 一般物價는 三割의 昂上이되엇슴으로 特히苦力、車夫其他의 下層階級大衆은 大恐慌이라한다。

中央銀行新紙幣 約一億元發行

【上海八日發聯合】中央銀行은 八日附로 新五角及 一角의新紙幣를 發行하야 現在流通하고잇는 一角及 五角의 補助紙幣와同樣으로 行使케하기로 決定하엿다 그總額은 적어도 一億元을 不下할模樣인데 市中은 新政策의 第一着手로 벌서부터 인플레가 온다는소래가 놉하가고잇다 新紙幣는 孔祥熙氏가 理事인 中華書局印刷處에서 印刷되고잇다한다

朝銀建價도百圓
日滿爲替名實共의「파ー」

滿洲國幣對 圓價의파ー維持政策이 決定된以來 朝銀은 對奉天(滿洲)爲替建値를 百圓三十錢으로 하얏는바 이는 日滿爲替動搖에 伴한 危險豫想이엇다 그러나 其後 滿洲國幣의 統一方針이 確立하야 朝銀券의 滿洲撤收에 依한 滿洲中央銀行과 朝銀間의 細目協定에 依하야 銀圓의『파ー』維持가 確實케되엇스므로 朝銀은 九日부터 對滿爲替建値를 百圓으로하야 名實共히 百圓파ー가 實現되엿는데 今後 特別한 事情이 업는限 이것을 持續할것으로보인다

▲新議員懇談會

京城商工會議所의 役員選擧는 二日後에 切迫한바 副會頭及 常議員選擧에 對한 田川常次郎氏派、戶嶋祐次郎氏派、兩派의 策動이 露骨化하엿슴으로 賀田直治氏는 前會頭의 名義로 九日 午後四時부터 朝鮮호텔에 茶話會를 開하고 新議員을 招請하야 이에對한 懇談會를 開催할터인데 右懇談會의 結果 副會頭及 常議員의 選擧에 對하야 무슨 協議가 잇슬것이라한다

上旬貿易出超 百四十八萬圓

【東京電話聯合】大藏省發表=十一月上旬對外貿易狀況은 如左하다(單位千圓)

輸出	五五、八四六
輸入	五四、三六六
合計	一一〇、二一二
出超	一、四八〇
一月以降出超累計	一四、六二三

今日財界 (九日)

◆米 (單位錢)
仁川期米 先限 [illegible]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京城三等米 [illegible]
正租(仁川)上 [illegible]
一斤價下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產 [illegible]

◆商品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金塊 [illegible]

商況(九日)
株式 保合不離 强保

前場不變 休日을앞두고 今朝의 場은 米棉、綿絲高、스테ー블高이나 依然 人氣가 散漫으로 保合不離이엇스니 即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三十錢高인 百五十九圓七十錢、大新十錢低인 九十六圓八十錢、日產不變인 七十八圓四十錢、朝新不變인 三十二圓六十錢、拓新 十五圓六十錢에 各寄引

◆朝新 三三〇(寄) 三三〇 三三〇 三三〇(引)
◆大新 九六九〇(寄) 九六〇 九六〇 九六八〇(引)
◆東新 一五九七〇(寄) 一五九 一五九 一五九七〇(引)
◆日產 七八四〇(寄) 七八 七八四〇(引)

後場休會 後場은 土曜日例休이다

警戒되는材料 一崩離免이나

大勢高支持로 頑强한듯이 잘떠러지지안흐나 目前的으로 一崩이 結局은 이고야말것이라는 觀點은 如左한 警戒材料에 立脚한 모양이다。

一、中國의 幣制改革은 日本側의 協力치안흘것이오 米國銀政策도 어떠케될지 從하야 爲替安定이 維持될뿐아니라 對中對英의 複雜한外交關係가 적지안케 人氣를 沮喪케할것

一、內審의 形勢는 明後年以降의 增稅方針을 考慮中이오 膨脹豫算의 繼續은 認할지라도 政府는 統制인프레下에 放慢한 積極的態度는 抑制할터이니 大인프레市勢가 展開되리라고는 생각할수업다

一、歐洲形勢도 擴大되지안코 和協後의 不況도 想像되며 延하야는 中歐의 金뿔럭 崩壞念慮도 再發될 念慮가잇다

人絹株의前途 收益低減難免

人絹株不安이 不去하야 帝人等이 上期配當을 据置한다면 固定資產償却年限을 延長치안는限 決算이 괴로울것이오 今期의 利益制限하다드래도 明年上半期에는 各社의 增設로 日產三十萬磅의 巨額에 達할것으로 現在의 約二十萬磅에 比하면 五割의 增產인즉 需要의 急激한 增大가 期待되지안는限 借款의 念慮가 濃化될 狀態이다 그럼으로 增產壓迫이 加重하는事情으로보아

市場六感

株 高價支持로 低價인 先高人氣로 買하니가 市勢는더욱자미업다 이러다가는 肺患市勢化키 十常八九 戾賣得當?◆雜株中心의下落時代로 變한모양 그래서 雜株의 蠶業方針이 妥當視된다고 換金時代?◆日纖의減收로 日產도悲觀되어 割低가 割低가아니오 早晩日產二二分減配가 當然한歸結이리라고 ◆人絹株도 前途增產壓迫으로 收益減少難免의實情 ◆모든材料를去하야 買進할根據가 薄弱해진것이 아닐가?◆財界基調無變化라는 것만가지고는 살勇氣가 안나고 新規好材料가 업다면 十月에買하얏던反動落이 順序일듯

米 市勢는 一高後 難伸難押으로 又復 保合을始作、何時에나 分岐?◆實로 昨今의 事情으로는 買賣成算할수도업고 또 買安心할수도업다◆第二回豫想이 發表된後에는 左右間 一波紋이 잇겟지마는……◆果然 第二回豫想發表가 强弱間에 唯一한材料인만큼 누구나 期待◆그러치만 硬派의 觀測하는바와如히 五千八百萬石까지의 減收說에는 肯定할수업는걸◆何如間 市勢는 一般의 膽首가 依然 强化인만큼 容易히 低落을許하지안흘것도 事實이다◆그러치만 新米의 出廻가 刻一刻으로 增殖하야 實勢威壓을 加할憂慮가 업지아니한 今日에 買方針만흘 固樹할수도 업다◆그런데 今月末에 納會될當限도 客月의受米가 渡米化하기가 十常八九인즉 結局 一落은難免◆그러한 關係로 當先의 鞘는 稍漸擴大 될것을可期

期米 伸悩後에 反弛

前場伸悩 昨後場 阪地三十圓十錢止와 共히 二十七圓九十五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十一錢인 一丁高를 算하고 二十七圓九十五錢인 昨止同樣으로 寄하엿다 寄付後 阪地五節〇九錢으로 十一錢까지 返戾止揚하얏고 九十一錢으로 五錢까지 返戾하엿다가 結局 九十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反弛 後場은 二十七圓九十四錢에 二丁高로 始場後漸弛하야 四、五節八十五錢으로 八十三錢에 止場하다

實物株前場取引

賣買三四〇枚 ◆證券金融 二圓〇 ◆大同鑛業 [illegible] ◆同新 [illegible] ◆金剛電鐵 [illegible] ◆阪神電鐵 [illegible] ◆朝新 [illegible] ◆大同酒業 [illegible] ◆電化新 [illegible] ◆日滿아루미 [illegible] ◆朝鮮鐵工 [illegible] ◆昭和製鋼 [illegible] ◆에라피이新 [illegible] ◆朝日釀造 [illegible] ◆貯蓄銀行 [illegible]

反撥後의商勢 結局仕手關係

昨晦場부터 今朝에 入하기까지 各地一高는 問題의 十限의受米五萬石을 入札에依하야 賣却하려하는中인데 그受米中 高橋一派의 所有가 一萬三千石、田中貞의 所有가 三萬七千石으로 入札의 價格이 大部分 二十九圓七十錢인데 高橋氏는 그入札價格에依하야 賣應할意思이며 田中貞은 三十圓以下에는 賣却치안흘決意임으로 도리혀 强材化하는觀이잇고 此를好感한 馬越老의 買物이 俄然續出하야 二十餘丁의反撥을 示함에至하엿다。그럼으로 今回의 反撥은 全혀仕手의關係로 볼수밧게업는데 實로 馬越老의 各地를 通한買物이 十七八萬石에達하야 去益戰線을延長하고잇는만큼 度外視할수업다 그러나 今月의當限渡米도 客月의 受米로써 利用하게되며 受方으로서는 忌避하지안흘수업는

第二回豫想이 大勢를左右?

日本內地米의 第二回豫想은 不日內로 發表될모양인데 實際의 觀測하는바에依하면 五千八百萬石說이 有利하고 散漫의推測에依하면 五千九百萬石說이 가장有力하다。果然 어느편의觀測이 當을得할지 此가注目處이며 同時에 持越米의數字가 如何할지 此亦問題인데 政府로서도 第二回豫想의 發表如何를따라 總下外賣上을 決定하게 될것임으로 結局은 不遠한時日에 一波瀾을 惹起하게될것이다。그럼으로 昨今의市勢는 多少興味를 添하기는하엿스나 活氣의觀을 呈하지 안흘가한다

이다。그런데 此에 冷靜히 一考量要할것은 日本內地米의 減收가 第一回에比하야 二百五十萬石이나 될가함이 疑問이오 又는 持越米의 一千萬石을 無難할것이라는 說이 有力한즉 結局 豫想發表와共히 一落을 告하지 안흘가한 商談도 多하다。

朝取期米取調組容

	當限	中限	先限
賣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各地正米

仁川底堅 正租와米의 需給에 賣物이 減退되엇다가 入注로 十錢高의 强調를示한 仁川日本內地 仁三等二十七圓九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六十五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五錢

釜山强調 市場賣物 四千叺增加、賣入不足豫想으로 販賣定期側의 入注가잇서 移出側의 適品買入氣配 二十二、四、五叺의 好買行을 示하야 三等二十八圓六十錢 四等二十七圓 一等白米三十二圓八十四錢

大邱昂騰 一般으로 秋收的

木浦强含 日本內地 續下米 消化良好로 買入注客 豫想하고

群山堅調 產地의 態度가 當外로 强硬한데다가 日本內地當用向의 買物이 出現하야 繼續하야 移出向의 買氣를 誘期하야 底意强含商狀을 示한 十錢續騰으로 ◎三等二十八圓十五錢 四等二十七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三

京城續高 淸算高를 移하야 賣物이 著減하고 續落에 十錢高唱

定期高로 適價買가 散見되어 市況이 强含氣味이나마 市勢不變 唱인 ◎三等二十八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丁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金銀 白金 分析 賣買
金城商會
地方注文代金引換發送 要送料
京城鐘路二丁目 電話光化門二九三七番

仁川期米
康益夏商店
仁川海岸町

京城株式
金益證券株式會社
京城黃金町

朝取取引員
株式 ㊄ 期米
營業內容進呈
柳來恒商店
京城府黃金町二丁目九九番地 電話本局(二)二六〇一 五三八七 四六八二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長 五二一六 七七二八 七三三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電話長 九一六 六九三 一一六五

金融(九日)

◆海外經濟(八日) [illegible]
◆朝鮮銀行券(八日) [illegible]
◆日本銀行券(八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九日)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京城正米 [illegible]

商品(九日)

◆京城綿糸布市勢 [illegible]
◆京城絹布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시카고期麥(八日) [illegible]
◆紐育油價 [illegible]
◆鯟搾粕冲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當	逆	不	先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淺野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拓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石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鑛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株式(九日)

◆朝取短期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賣買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氣配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現物 [illegible]

期米(九日)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仁川入庫 [illegible]
◆鮮內各地倉庫在米 [illegible]

商品(九日)

◆大阪綿糸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各地入綿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八日) [illegible]